



[산업] 정의선의 선택과 집중 현대제철 이사 사임 미래車 올인 06



Economy

코스피	2076.77 (-26.84)	코스닥	654.63 (-2.32)
금리 (미국 3년)	1.14 (-0.04)	환율 (원/달러)	1216.90 (+6.60) (26일)

# 위기때마다 우리는 하나였다... 힘내라! 대구·경북

## | 데스크 제언 | 윤휘중 산업부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구·경북이 졸지에 '공공의 적'이 돼 버렸다. 엄밀히 말하면 대구·경북은 피해자다. 그런데 마치 대구·경북을 죄인 취급하고 있다. 폭력 당한 피해자에게 '왜 당했냐'고 책임을 묻는, 2차 피해를 주는 격이다.

지금 국민은 가뜰이나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위기를 관리하고 국민을 진정시켜야 할 당·정·

청이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기쁨을 부었다. 여당 입장에서 그 지역이 못마땅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책임 있는 발언은 아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서로 반목하고 분열을 조장할 때가 아니라 지혜를 모으고 합심해 묘수를 찾아야 할 때다. 이런 상황을 자신들의 세를 불리려는 기회로 삼는 집단들도 있기 마련이다. 유라시아그룹 회장인 이안 브레머는 '우리대 그들'이란 저서에서 '우리'와 '그들'을 나눔으로써 이득을 챙기려는 세력들은 항상 뭔가 '꺼리'를 찾는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나 피해자들을 '그들'로 규정하는 세력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혼란한 틈을 타 한 동안 잠잠했던 지역갈등, 진영갈등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번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국민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가릴 것 없이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미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확산하면서 지역 감염 방지에 돌입했다. 이런 움직임을 격려해야 한다.

국민 모두는 코로나19가 국가적 위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련을 각오해야 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그 대신, 정부와 지자체는 세제혜택이나 지원금 보조 등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를 덜기 위해 건물주들에 대한 혜택도 고려해야 한다.

재택근무하는 직장인들엔 불이익이 없도록 보살펴야 한다. 모든 중소기업·자영업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없겠지만 최대한 세심한 정책을 펼쳐

야 한다. 기업들은 지역사회 상생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 매출이 끊긴 음식점을 위해선 미리 음식값을 결제하고, 상황이 진정된 이후 회식이나 식사를 하겠다고 제안하는 것도 아이디어 중 하나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 국민에게도 알려야 한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비한 2차 의료, 3차 의료대책이 시급하다.

/yhj@metroseoul.co.kr



길거리 소독하는 방역 요원들

6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요원들이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순혈 대신 외부영입... 투명경영 활짝

## SAMSUNG 삼성의 변화

### <上> 거버넌스 고도화

이재용 부회장, 준법·책임경영 실천 준법감시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이사회 의장에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삼성전자가 그동안 고집했던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회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기업 내 수직적 문화도 수평적으로 바꾸는 등 구성원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메트로경제는 3회에 걸쳐 삼성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삼성전자는 최근 준법감시위원회와 이사회에 각각 외부인사를 영입하면서 준법 경영과 책임 경영을 위한 양날개를 갖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강조한 투명경영 의지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5일 출범한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장



박재완 삼성 이사회 의장

삼성 준법감시위에 삼성전자는 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선임하며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 계열사의 준법경영을 감시하기 위한 독립기구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들의 준법경영을 관리한다.

준법감시위가 삼성 그룹 7개 계열사들의 대외후원금 지출 및 내부거래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여부를 판단해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거래에 대해서도 준법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하

는 방식이다. 준법감시위는 대외 후원금과 내부거래, 부정청탁뿐 아니라 승계 문제까지 관여할 수 있는데 이는 이 부회장의 의지 없이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첫 공판기일에서 "실효적 준법경영 체제를 확립하라"고 주문한 뒤 4개월여 만에 후속대책 차원으로 나온 것인 만큼 향후 역할이 기대된다.

준법감시위 외부위원은 김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시민단체 인사들은 재벌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노사관계 등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왔던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으며 법조계, 학계 인사들은 기업 범죄 수사나 공정거래·지배구조 연구 등 이력이 있다.

삼성전자는 이사회 의장도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8면에 계속>

/구서윤 기자 yuni2514@

# 코로나 확산에 항공업계 위기 제주항공, 이스타 인수 불발설

## 이스타 항공 실사 늦춰져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며 항공업계 전체가 위기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 인수에 따른 효과는 고사하고 인수 자체도 가능할 지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이스타홀딩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스타항공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를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권을 발행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매매계약(SPA)

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9일까지 마치기로 했던 SPA가 여러번 미뤄지며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제주항공은 1월 9일까지였던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한을 지난해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1월 중'으로 연기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다시 '2월 중'으로 재공지해 두 달 넘게 이스타항공에 대한 실사를 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2월이 며칠 안 남은 시점에서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는 입장이다.

이스타항공에 대한 실사가 늦춰지는 배경으로는 심각한 부채비율, 엄청난 항공기 리스료 등이 꼽힌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코로나19 관련기사> 2~4, L3~L7면

# 코로나 비상 속 한은 금통위... 이주열 선택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 전망이 우세했으나 최근 코로나19가 지역감염으로 확산하며 분위기가 달라진 것.

한국은행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내리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인 1.0%를 기록하게 된다. 한은은 로서는 '가보지 않은 길'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은은 27일 오전 금통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코로나19가 지역감염으로 확산하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1.00%로 인하할 것이라 전망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1.00%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한은은 전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금통위는 2003년 5월 사스 사태 당시 기준금리인 콜금리를 4.25%에서 4.0%로 내렸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하던 2015년 6월에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

세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로 확산할지, 지속 기간이 얼마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경제 영향을 예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르고, 지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발언으로 금리동결 기조는 강해졌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지역감염으로 확산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경제적 충격이 현실화될 조짐이 보이자 금리인하론으로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

<5면에 계속>

/김희주 기자 hj89@

# JY “국민 성원으로 성장... 지금같은 때 사회와 나눠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재계 피해복구 지원 본격화

정의선 “의료활동에 직접 도움되게 구체적인 지원 이뤄지게 해야”

대구·경북 중심 방역서비스 실시 긴급회의 등 열고 물품지원 계획

재계가 코로나19 예방과 피해 복구 지원을 본격화했다.

삼성은 26일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의료용품과 생필품 등 30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14개 계열사가 이날 이사회와 경영위원회를 열고 지급을 결의했다.

삼성은 ▲손소독제와 소독티슈 등의 의료용품 ▲자가 격리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키트 ▲의료진을 위한 면역력 강화 건강식품세트 등의 구호물품과 구호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의 성원으로 성장한 삼성은 지금과 같은 때에 마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히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해야 한다”며 “이번 일로 고통 받거나 위기 극복에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력하나마 모든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코로나19의 사전 방역과 조속한 피해 복구 등을 돕기 위해 50억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원이 대구·경북지역에 집중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치료·방역 등 의료활동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우선 전국의 재난취약계층과 의료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현금과 구호·방역 물품 제공, 예방·방역

활동 등을 지원한다. 감염 시 피해가 큰 재난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구·경북지역의 노인·장애인 시설과 지역 아동센터, 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가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열감지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을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대구·경북지역의 소외계층과 자가격리자들에게 식료품 키트도 전달한다.

SK그룹 역시 같은날 5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앞서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SV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긴급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SK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코로나19 피해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 보육원과 양로원 등 취약 계층과 자가 격리자들을 위한 생필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대구·경북 지역 의료지원 봉사자와 방역 인력 등을 위해 방호복 등 의료

물품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4억원 가량 현물을 전달기로 했다. 경북 구미에 있는 SK실트론이 마스크 10만장과 손세정제 2만5000개 등 현물을 내놓기로 한 것. 물품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쓰이게된다.

아울러 SK그룹과 관계사들 역시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 동참기로 했다. 대구와 경북 지역 등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로 현금과 현물 이외의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LG도 같은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억원을 기탁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재난·취약계층과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LG는 확진자 지원과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물품을 지원하게 되며, LG생활건강이 추가로 10억원 상당 핸드 위시를 기부하기로 했다.

/양성운·김재용 기자 ysw@metroseoul.co.kr



## 마스크 106만개 대구에 긴급 지원

대구·경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26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흥동 대구스타디움에서 중앙정부에서 긴급지원한 마스크 106만개가 대구시 각 구청과 경북 각지에 배분되고 있다. /연합뉴스

## 감염자 일주일새 32명→1200명대 폭증

확진자 284명 추가... 누적 1261명  
대구·경북서 81%... 사망자 12명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한달여만에 1200명을 넘어섰다. 32명에서 1200명 이상으로 40배 늘어나는데는 고작 일주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오전 9시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 169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총 1146명으로 늘며 처음 1000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오후에 115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국내 확진자는 1261명으로 늘어났다.

국내 코로나19는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35세 중국인 여성이 첫번째 확진자로 판정을 받으며 시작됐다. 이후 한달간 총 32명의 확진자만 발생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듯 했다. 상황이 뒤바뀐 건 지난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인 31번째 환자가 발생한 이후 부터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을 중심으로 대구와 경북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8일만인 이날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섰다.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도 1000명을 넘어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서도 235명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나왔다. 대구에서 167명, 경북에서 68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전체 환자 중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환자는 총 1027명으로 전체 환자의 81%를 차지한다. 서울 확진자도 총 49명으로 늘어났고, 부산에서도 이제까지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청도 대남병원 내 7번째 사망 사례가 발생했고, 대구에서도 73세 남성이 사망하며, 사망자는 총 12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천지 21만 교인 명단을 확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전달해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자가격리 조치한 후 감염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전국 어린이집을 다음달 8일 까지 열흘간 휴원한다. 다만,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당면 교사를 배치해 긴급 보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출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 유연근무제를 적극 권장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보험사, 코로나19에 희비 엇갈려

생보사 대면영업 98%, 손보사 87%  
보험사, 설계사에 영업 자제 권고  
지난달 車보험 손해율 20%p 하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명·손해보험사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설계사 중심의 대면영업 비중이 높은 보험업계 영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당장 올해 1분기 실적 이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과다 입원 환자, 일명 나이롱 환자가 줄면서 손해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대면영업 비중은 생명보험이 전체 영업의 98%, 손해보험이 전체 영업의 87%를 차지했다. 최근 텔레마케팅(TM) 채널이나 온라인(CM) 채널을 통한 비대면 영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설계사를 통한 대면 영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셈이다.

코로나19가 지역감염으로 확대되면서 보험 영업도 직격탄을 맞았다. 감염

에 대한 우려로 타인과의 만남을 기피하면서 대면영업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험설계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나오면서 영업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대구수성구에 위치한 삼성화재 대구사옥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 20일 폐쇄됐다가 24일 다시 문을 열었다. KB손해보험 대구지점 사옥도 지난 21일부터 임시적으로 폐쇄됐다 26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갔다.

이 영향으로 일부 보험사들은 대면모집을 주요 채널로 활용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영업 자제 권고를 내렸다.

KB손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특별 근무 지침을 안내했다. 특히 대면채널을 통해 영업하는 설계사에 대해 각 지역단에서 영업을 되도록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삼성화재의 경우 설계사도 여행자제를 권고하고 해외 방문 시 보고하도록 하며 대면영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필요시에는 내부 직원의 유선연결을 통해 업무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교보생명도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방역용품(손 세정제·마스크·체온계)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고객접점(프라자·용자창구·지점)을 대상으로 비대면 영업 활동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보험 실적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보험영업이 상당 부분 축소되면서 실적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비대면 채널을 통한 영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로 나이롱 환자가 줄면서 손보사들의 보험금 누수 감소로 손해율이 감소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화재(96%), 현대해상(90.5%), DB손해보험(89%), KB손해보험(90%) 등 9개 손해보험사의 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91.7%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이들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평균이 111.6%를 기록한 것을 고려할 때 2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김희주 기자 hj89@

## 기업 체감경기 급랭... 4년만에 최저

### 한은,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산업 BSI 65... 하락폭 역대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 체감경기가 급격히 얼어 붙었다. 2월 전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0년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업

황BSI는 65로 전월 대비 10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지난 2016년 2월(63)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았다. 하락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1월 이후 가장 컸다.

제조업 업황BSI(65)는 전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이 역시 2016년 2월(63)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다. 하락폭은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가 미친 2012년 7월(-11포인트) 이후 7년 7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김희주 기자



# “서울 이미 방역 뚫렸을수도... 전국 폐렴환자 전수 조사를”

**인터뷰 |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방역망은 이미 뚫렸다. 서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들은 현재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다. 서울은 인구가 많고, 교통 요지라는 점에서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와 닮아있다. 감염자가 크게 늘지 않았던 지난 한달여간 사실상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점도 점도 비슷하다. 더욱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서울에도 우한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던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1000명을 넘은 26일,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를 만났다. 천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호흡기센터장으로 사스와 메르스 등의 감염증을 거친 풍부한 임상 경험은 물론 국내외 학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내 호흡기 질환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지난 한달여간 계속해서 이번 감염증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전국 폐렴환자 전수조사 필요”  
천 교수는 메르스나 사스와 비교해 코로나19가 가진 독특한 특성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았다.

그는 “코로나19의 가장 큰 문제는 전염력이 강하고, 잠복기가 길며, 감염자가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도 전염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특히 열이 없어도 폐렴이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열로 감염자를 걸러내는 현재 방역 방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방역 골든타임 놓쳐 확산 지금부터 무증상 다수, 발열로 감별은 잘못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 병원 늘면 의료공백, 확진자 지속 발생 초래 치료제 투여 등 강력한 조치 필요

천 교수는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은 이미 시작됐다고 봤다. 코로나19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던 지난 한달여간 방역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크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감염증 확산은 이제 시작이고 다음달쯤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루 빨리 렘데시비르와 같이 코로나19에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제 투여를 시작해 경증이 중증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인력을 대구·경북지역에 집중하지 말고, 전국 폐렴환자의 전수조사에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천 교수는 “지금은 병원에서 폐렴환자의 검사를 의뢰해도 인력 부족으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하는 사이 서울과 부산과 같은 나머지 대도시에서 확산이 급격히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병동 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공백이다. 현재 방역 대책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코로나19는 폐렴 진행속도가 빠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르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후 확진이 이뤄지는 사례가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며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되는 병원이 늘면 의료공백이 전국적으로 생기고, 환자는 계속 새어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을 막고, 개학과 개강을 최대한 늦추거나 온라인 강의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구 지역과 다른 지역간의 이동 억

시 최대한 제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 ◆“발열보다 호흡기 질환 살펴야”

천 교수는 감염 여부를 자가 진단하려면 발열보다는 호흡기 증세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폐렴 여부를 판단하려면 엑스레이보다는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해야 한다.

그는 “중국 사례를 보면 젊은층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발열이 거의 없다. 열이 없어도 기침이 심하고 호흡이 불편해지는 경우엔 병원을 찾아야 한다”며 “코로나19 폐렴은 엑스레이로는 잡히지 않는 사례가 많아 CT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천 교수는 “면역력이 좋은 젊은 감염자들은 자각증세는 없지만 전염력은 강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며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집 밖을 나갈 때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코로나19 극복에 힘 쓰는 기업들

### 마스크 15만장 기부 “힘내라 대구·경북”

#### 한화-한화솔루션 취약계층 전달

한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한화그룹 주력 계열사인 ㈜한화화 한화솔루션은 26일 코로나19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에 마스크 15만장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들은 대구·경북지역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대구와 경북 지역에 마스크를 공급한다.

㈜한화화 한화솔루션이 기부하는 마

스크 15만장은 의료진과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 및 노인, 저소득 가정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화화 한화솔루션 등 한화 계열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각 사업장에 마스크 및 손세정제를 비치해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사옥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자를 모니터링하고, 단체 행사 및 교육취소, 회식 등 불필요한 모임을 금하고 있다. 전직원 매일 체온 점검, 임시부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권장 등을 통해 확산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대구·경북지점 1000곳 생필품 30% 할인”

#### 세븐일레븐 생수·라면 등 10개 품목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일부 생필품 부족 현상 등으로 각종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 지역 주민을 응원한다.

세븐일레븐은 27일부터 3월11일까지 2주간 이 지역 1000여 점포에서 주요 생필품 카테고리인 핵심 10개 상품들 20~30% 할인 판매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필품 구매 니즈가 많아지고, 원거리 이동과 외출을 꺼리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다.

아이시스 2 l (6입), 진라면 매운맛 (5입), 햇반 3번들, 오투기밥, 신선 대란 (20입), 스펀 클래식 200g, 3분 카레 매운맛, 대코 소프트 3겹 티슈 30롤, PB 참고소한 도시락 8입, 동원 라이트참치 등이다.

/김민지 기자 kmj@

금융의 모든 순간\*
헤아림

## 해외여행 갈 때

# 보험은 ON

## 복잡한 서류

# 절차는 OFF

여행 갈 때마다 반복되는 복잡한 서류절차 없이 단 한번 가입으로 여행 전 간편하게 ON!

### On-Off 해외여행보험

보험사 최초! 2019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 1 **가입은 한 번만**  
안 바랄 때 미리 가입하고, 여행 갈 때마다 간편하게 ON!
- 2 **출국 전 언제 어디서나!**  
집, 공항, 이륙 전 비행기, 어디서나 편리하게 ON!
- 3 **보장은 든든하게!**  
각종 사고와 휴대용품 보장까지 든든하게 ON! (해당특약가입시)
- 4 **보험료는 가볍게!**  
두번째 해외여행부터는 10% 할인!




보험에 마음을 더합니다

## NH농협손해보험

\* On-Off 해외여행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 앱, 모바일(https://m.nhfire.co.kr) 및 전국 농축협과 농협손해보험 지점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지급시 연대책임자 확인필요를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통장청약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하는 분 보험회사에 있는 보험계약자의 모든 예금보통 예금 등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합계 상의 제1970호(2019.08.05)

www.nhfire.co.kr

# 1644-9000

중 유학생 10중 9명 학교 밖 거주

# ‘1일 1회 유선체크’... 양심적 자가격리에 떠는 대학가

학생행동 직접 확인은 불가  
사실상 통제는 어려운 상황  
대학가 “정부차원 관리했어야”



26일 오후 서울 경희대학교 인근 원릉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개강을 앞두고 중국 유학생 입국이 본격화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안감이 대학가에 고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숙사가 아닌 대학가 주변 원룸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때문이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중국 유학생 기숙사 수용율은 대부분 10% 미만이다. 10명 중 9명은 학교 밖 오피스텔이나 원룸촌에 거주하는 셈이다. 사실상 이들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국내 196개 대학의 재학생 기준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22.1%다. 소재지별로 수도권(17.7%)은 비수도권(25.4%)보다 열악하다. 특히 기숙사 수용률은 전체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 비율로 대부분 3~4인실을 기준으로 한다. 교육부 중국 유학생 대응지침대로 1인1실을 기준으로 하면 이보다 크게 낮아진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가 중국인 유학생이 1000명 이상인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기숙사 외국인 유학생 수용현황을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1실을 배정할 경우 경희대, 성균관대, 건

국대, 한국외대, 연세대, 숭실대, 우송대, 이화여대, 단국대, 서강대를 제외한 7곳은 절반 이상 수용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이들 대학의 외국인 학생 수용 비율을 보면, 최소 11.0%(홍익대) ~ 최대 56.8%(우송대) 수준이다.

실제로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경희대(지난해 기준 3839명)의 경우 입소 희망자는 480여명으로 나머지 3400명 정도는 학교 밖 오피스텔과 원룸 등

에서 지내게 된다. 나머지 대학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성균관대도 중국 유학생 3330명 중 100여명 이외 다수 학생은 학교 외부에 거주하기로 했고, 중앙대 3199명 중 80여명, 고려대 2508명 중 180여명, 한국외대 1810명 중 80여명, 연세대 1400명 중 30여명 수준이다.

대학들은 학내 교직원과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해 외부 자가격리 대상 유학생들에게 매일 유선으로 발열과 상태 점검, 외출 자제 등을 당부하고 있지만, 실제 학생들이 외출하거나 안전수칙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다.

대학 교수나 학생 확진자도 나오면서, 대학가가 코로나19 확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 26일 서울시내 추가 확진자 11명 중 동작구 여대생 A 씨(21)가 포함됐고, 울산시 남구 거주 대학생 B 씨(21)도 이날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여 확진자로 분류돼 울산대학병원에 격리입원됐다. 대구에 이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

생하는 부산 소재 부산대는 지난 21일 겸임교수인 확진자 C 씨(48)가 교내 통합기계관 2층 실습실과 인근 식당을 들른 사실이 확인돼 24일부터 학교 기계관 1,2층 도서실과 카페 등이 폐쇄됐고, 접촉한 교수 3~4명과 일부 직원이 자가격리 조치됐고, 앞서 24일 법전원도 확진자가 다녀가 출입이 통제됐다.

대학가에서는 정부가 애초부터 중국 유학생 입국을 차단해 격리시설로 보내 자가격리토록 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 소재 모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학의 기숙사 규모를 파악하고 있을텐데, 기숙사에 최대한 수용하고 나머지는 1일 1회 유선체크를 하라고 한 게 이해되지 않는다. 대학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감염병 사태 초기부터 중국 유학생 입국을 아예 차단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우한교민처럼 정부차원에서 2주간 격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홍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하루만에 방역 끝낸 국회, ‘코로나3법’ 개정안 처리

감염병 유행지역 외국인 출·입국 금지  
환자검사 거부시 벌금·의약품 수출제한



국회는 26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 등 법률안과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현안을 처리했다. 사진은 본회의장 전경. /연합뉴스

국회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코로나 19 방역 문제로 국회가 일시 폐쇄되면서 임시국회가 멈춘 이후만 하루 만이다. 앞서 국회는 24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본관과 국회의원회관 등에 방역 작업을 했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코로나 3법 중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이 유행, 또는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외국인과 이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

용이 담겨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한 의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 및 차단과 관련해 지켜야 할 운영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감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나 발병 의심자에 대해 조치할 근거, 위기경보 ‘주의’ 단계 이상일 때 감염 취약 계층에 마스크 지급, 감염병 의심자 검사 거부 시 300만 원 이하 벌금형, 방역·치료 필수 물품과 장비 및 의약품 공급이 부족할 경우 이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등을 담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코로나 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노태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했다. 국회 교육위원장과 정보위원장도 선출했다. 교육위원장은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정보위원장은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았다.

한편, 24~26일 예정된 대정부질문은 3월 중에 처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호덕 민주당·김한표 통합당·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3월 2~4일까지 3일간 대정부질문 일정에 합의했다. 이외에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률안은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3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우리은행

#### 개인뱅킹 수수료 면제

그룹 역량 총동원, 고객 금융지원  
최대 6개월간 카드대금 청구 유예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19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그룹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우리은행 등 전 그룹사의 보유 역량을 총동원해 대고객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대인접촉에 따른 불안감 해소와 확산방지를 위해 전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이용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음식, 숙박, 관광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4000억원 규모로 신속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시적 영업실적 악화로 유동성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우 현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대출만기를 유예하기로 했다.

우리카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최대 6개월간 카드대금 청구를 유예한다. 영세·중소기업 이용고객 대상으로 다음달 31일까지 2~3개월 무이자할부 지원은 물론 카드론 등 카드대출금리인하 및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우리종합금융도 그룹 차원의 전사적 지원 대책에 동참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만기를 유예하고, 연체이자도 면제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사진)은 “이번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특히 수천만 고객이 거래하는 은행과 카드 부문 등에서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먼저 움직이는 기업들 “사업장 내 감염 철저히 대비”

열화상카메라 등 직원 관리  
선제적 폐쇄·방역 조치 효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산업 현장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대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공포가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사업장들은 최근 잇따라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발생으로 곤혹을 치렀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삼성전자가 구미사업장을 일시 폐쇄했고, LG전자 인천 VS사업부 연구동도 방역을 마쳤다. SK하이닉스도 밀접접촉자가 생기면서 이천사업장과 청주사업장 일부

를, 한국지엠도 의심자 발생으로 GM테크니컬코리아 건물을 폐쇄후 방역 조치했다. 그 밖에도 크고 작은 사업장이 밀집 접촉자나 확진자 발생으로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방역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장 근무자들이 공포에 휩싸인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와 사측이 여러 조치를 시행중임에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전국 주요 사업장 인근에는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중이다. 26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여러 공장이 밀집한 대구 및 경북 지역은 확진자가 944명에 달한

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이 밀집해 있는 울산도 3명이고, 르노삼성자동차 공장이 있는 부산도 51명으로 급증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 청주 사업장이 있는 충북은 5명, 삼성전자반도체 공장과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업장이 몰려있는 경기도도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장 큰 문제는 소문이다. 각 업장 직원들 사이에서는 지역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소문이 퍼지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25일에는 건설업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진 확진자가 모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소문 때문에, 여러 직원들이 공포를 호소하기도 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확진자 신상을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아 일어나는 촌극이다.

업계는 일단 사업장 내에서는 감염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열화상카메라뿐 아니라 체온 전수조사 등을 통해 감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직원 출입을 아예 금지하고 있어서다.

확진자라도 증상이 발현하기 전 잠복기에는 감염 가능성이 낮은 데다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만일의 사태도 차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감염을 조심하긴 해야하지만, 업무 효율 우려도 적지 않다”며 “공포가 너무 과열된 분위기다.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만큼 사태 해결을 위해 회사를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 금융+ICT 융합할 인재 어디에 인터넷은행 '수장찾기' 물색전



**캐뱅크** 심성훈·옥성환 등 후보군에  
**카뱅크** 윤호영과 공동대표 찾는 중  
**토스** 본인이 때까지 현 체제 유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할 수 있는 수장 찾기에 나섰다.

케이뱅크가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시했으며, 카카오펙 역시 이용우 전 공동대표 후임으로 후보군을 물색 중이다. 정기 주주총회가 3월 말임을 감안하면 카카오펙도 다음주 중으로는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가칭)는 준비법인을 이끈 수장으로 삼성전자를 거쳐 토스의 송금서비스를 선보인 홍민택 대표를 낙점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날 오후 차기 행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추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향후 몇 차례 추가 회의를 거쳐 3월 중순께 최종 후보자를 내놓을 전망이다.

기존 심성훈 행장은 지난해 9월로 2년의 임기를 다 채웠지만 자본확충 등을 이유로 3월 말 정기주총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상태다.

일단 심 행장을 비롯해 옥성환 경영기획본부장과 안효조 사업총괄본부장, 김도완 ICT총괄본부장 등은 차기 행장 상시 후보군이다.

여기에 최대주주인 KT 관련 인물들이 차기 행장감으로 거론되고 있다. KT의 금융 계열사인 비씨카드 이문환 전 대표와 케이뱅크 출범을 이끌었던 KT 김인회 전 사장 등이다.

변수는 국회다. 계류 중인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 주주로서 KT의 의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대주주 적격 심사도 재개될 수 있다. 일단 다음달 4일 법제사법위원회, 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코로나19로 두 차례나 연기된 만큼 향후 일정도 달라질 수 있다.

카카오펙은 윤호영 대표와 함께 은행을 이끌 공동대표 후보자를 찾는

중이다. 한국투자증권 출신인 이용우 전 대표가 지난달 31일자로 사임하면서 현재는 윤 대표 단독 체제다. 차기 공동대표로는 한국투자금융과 계열사 현직 임원을 비롯해 외부 인물들도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는 지난달 말에 인터넷은행 본인가를 위해 토스혁신준비법인을 출범 시켰다.

준비법인의 수장은 기존 토스에서 프로덕트 오너(Product Owner)였던 홍민택 대표다. 홍 대표는 IBM과 삼성전자 등 국내외 IT기업을 거쳐 지난 2017년에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에 입사했다. 비바리퍼블리카에서 송금과 결제, बैं킹 등 다양한 서비스를 담당했다. 본인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홍 대표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토스 관계자는 "홍 대표는 비바리퍼블리카에 입사한 이후 여러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며 "특히 인터넷은행 본인가를 잘 준비해야 하는 준비법인 대표로서 비바리퍼블리카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잘 정착시키고, 여러 주주사들과 다양한 사안을 잘 조율해 진척 시킬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하나銀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출시

하나은행이 26일 서울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청년 주거안정 금융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용자추천을 받은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며,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원(월세 70만원)이하의 서울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최대 7000만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 기간 내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임대차 연장 시 최장 8년까지 대출연장 할 수 있다.

하나은행이 단독 취급하는 이번 상



품은 서울특별시에서 이자를 최대 연 2.0% 지원해 최저 연 1.0%(출시일 기준) 금리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대출한도 7000만원 가정 시 연간 최대 140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

특히 영업점 방문없이 '하나원큐'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한도 조회 및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나유리 기자

## 캐롯손보, 디지털 보험 특허권 등 획득

캐롯손해보험은 지난 1월 출범 이후 출시한 신규 디지털 기반 보험과 관련해 특허권과 배타적 사용권을 연이어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캐롯손보는 국내 최초 운전한 만큼만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퍼마일 자동차보험 프로세스 관련해 최근 특허청의 BM(Business Model) 특허를 받았다.

퍼마일 자동차보험으로 특허를 받은 발명 명칭은 '자동차 트립 정보에 기초한 보험료 자동 산출 시스템'으로 캐롯 플래그를 이용한 자동 주행거리 확인, 보험료 정산 과정의 프로세스에 대한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또 손해보험협회로부터는 쿠폰형·크레딧형 보험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녹아든 스마트ON보험으로 배타적 사



용권 2종을 획득했다.

횡수에 상관없이 1년간 여행일 만큼만 납부하는 '스마트ON 해외여행보험'의 단기유예 배타적 사용권 3개월, 산책 갈 때마다 1회당 보험료를 정산하는 '스마트ON 펠트책보험' 위험 담보 3종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을 받았다.

/김희주 기자 hj89@

## 기업은행 신임 전무이사에 김성태 내정

금융위, 내일쯤 공식발표 예정

IBK기업은행의 '2인자' 자리인 신임 전무이사(수석부행장)에 김성태 IBK캐피탈 대표(사진)가 내정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성태 IBK캐피탈 대표가 기업은행 전무에 낙점됐다. 앞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김성태 IBK캐피탈 대표와 최현숙 전 여신운영그룹장(부행장)을 복수 추천하자, 금융위원회가 김성태 IBK캐피탈 대표를 낙점한 것. 기업은행 전무는 행장이 추천 및 제청하고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 금융위는 오는 28일쯤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태 IBK캐피탈 대표는 1962년 생으로 대전상고와 충남대를 졸업하고 1989년 기업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경동지역본부장, 소비자보호그룹장 등을 역임했으며



난해 2월 21일 IBK캐피탈 대표로 취임하기 전까지 기업은행의 경영전략 그룹장을 맡았다. 김 대표는 윤용로 전 행장 시절 비서실장을

을 지내며 외부 출신 행장과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이번 인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기업은행 전무로 자리를 옮기면 IBK캐피탈 대표 자리에는 경합을 벌였던 최 전 부행장이 내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행장이 능력 있는 여성을 중용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힌 만큼 최 전 부행장이 윤 행장의 인사 철학에 부합하다는 판단에서다. 최 전 부행장은 지난 20일 관례에 따라 3년

(2년+1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한편 청와대는 윤 행장이 복수 추천한 김 대표와 최 전 부행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검증 과정에는 기업은행 노조가 지지하는 시석중 IBK자산운용 대표도 포함해 검증이 이뤄졌다.

기업은행은 지난 20일 윤 행장 취임 이후 첫 정기인사에서 최성재 글로벌사업부장을 글로벌·자금시장그룹장, 김영주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을 여신운영그룹장, 윤완식 경서지역본부장을 IT그룹장, 임찬희 강남지역본부장을 개인고객그룹장에 각각 선임했다. 현재 임기를 마쳤지만 자회사를 이끌고 있는 김영규 IBK투자증권 대표, 장주성 IBK연금보험 대표, 서형근 IBK시스템 대표의 후임 인사는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카톡 플친서 '신한미래설계포유' 만나요"

신한은행, 연금·재테크 콘텐츠 제공

신한은행은 연금·재테크·부동산·라이프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신한미래설계포유'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을 오픈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은퇴 브랜드 '신한미래설계'를 런칭하고, 은퇴 고객을 대상으로 쉽고 편하게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는 신한미래설계포유를 신한 솔(SOL)과 모바일앱에서 운영하고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신한미래설계포유 플러스친구 채널을 통해 다양한 은퇴 정보와 일상 생활에 필요한 라이프 콘텐츠를 제공하며 고객과 소통할 계획이다.

플러스친구 채널에서는 ▲앱 설치 없이 빠르게 할 수 있는 '은퇴설계' ▲



각 기관별 연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내 모든 연금' 등의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 "코로나 확산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

» 1면 '코로나 비상 속 한은...서 계속'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기업 체감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앞선 사례처럼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4일 해외 출장 일정을 당초 예상보다 하루 앞당겨 귀국해 '코로나19 관련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 총재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과 위기경보의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점검하고, 한은 업무지속계획의 세부실행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정부와의 '정책공조' 차원에서라도 한은이 이달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밝힌 데 이어 24일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비상한 경제시국으로 특단의 처방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당초 한은이 2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24일 이후 확진자

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이번 금리인하 이후에도 0.75%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지난해 가계빚은 사상 처음으로 1600조원을 돌파했다. 자칫 금리를 낮출 경우 가계빚 증가세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다. 금리인하가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서 한은이 감염병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이르면 4월, 늦으면 하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금통위 회의에는 금리인하 소수 의견이 더 늘어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금통위에서는 조동철·신인석 위원이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금리인하 기대가 강화됐지만 과거 감염병 사례를 고려하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평가하기 이르다"며 "그만큼 한은이 금리인하를 선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 정의선 ‘선택과 집중’... 현대제철 이사 사임, 미래후 올인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현대제철, 전문 경영인 체제 강화  
현대차·기아차 등선 이사직 유지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본격 가속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집중한다.

정 수석부회장이 현대제철 사내이사직을 공식 사임함에 따라 그룹의 본업인 모빌리티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전날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서명한 현대제철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안건을 포함했다. 정 수석부회장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정 수석부회장은 현대차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그룹 주요 계열사인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사내이사직만 유지한다.

회사 관계자는 “사내이사 임기 1년을 남기고 사내이사직을 사임한 건 현대제

철은 전문 경영인 중심으로 운영하고 정 수석부회장은 자동차 사업에 더욱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다음 달 현대차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정 수석부회장이 준비하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는 다음 달 1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임기 만료를 앞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재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1999년부터 현대차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겸해온 정 회장이 물러남에 따라 정의선 체제는 더욱 공고해진다. 정 수석부회장은 2018년 9월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 이후 지난해 주총에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대표이사를 맡으며 그룹의 실질적인 수장 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정 회장 시절의 현대차가 내연 기관 차량으로 성장해 왔다면, 다가올 정의선 시대에는 모빌리티 서비스와 전동화 차량으로 미래 경쟁력을 구축할

방침이다. 다음 달 주총에서 사업 목적에 모빌리티 등 기타 이동수단과 전동화 차량 등 중전 사업을 추가하는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

또 전동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로보틱스, 개인용 비행체 등 미래 사업 역량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

반면 정 수석부회장이 사내이사직을 사임한 현대제철은 자동차 강판 등 핵심 사업을 제외한 사업부에 대한 사업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단조(금속을 일정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 사업을 전달할 자회사를 신설한다고 공시했다. 단조 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한 차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SKT, 5G 판 키울 스타트업 발굴·육성

5GX 트루이노베이션 엑셀러레이터 테스트베드 공간, 테스트용 단말 제공

SK텔레콤이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 서비스 관련 유망 스타트업 발굴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증강·가상현실(AR·VR), 미디어, 보안, 카메라, 모빌리티 등 5G 특화 서비스 분야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5GX 트루이노베이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트루이노베이션 엑셀러레이터’는 SK텔레콤이 스타트업과의 보다 체계적인 상생협력을 위해 운영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5G 본격 상용화와 함께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5GX 트루이노베이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스타트업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부문을 5G 특화 서비스 전 분야로 확대한다.

SK텔레콤은 27일부터 4월5일까지 2인 이상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접수를 시작해 ▲참여 스타트업선정(5월 중) ▲지원·육성 프로그램 운영(5~10월, 약 20주간) ▲서비스 본격 론칭(11월 중) 등 각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최대 15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선발된 스타트업들은 기본적으로 신규 기술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업무 공간과 테스트용 단말을 제공받게 된다. 또 SK텔레콤 내부 실무자 및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사업 전략, 기획 등에 대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다. 또 유관기관,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사업 전략 및 외부 투자 유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네트워킹 자리도 마련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

## 현대차, 고성능 ‘N’ 품은 자전거 공개

위아위스와 ‘N 스페셜 에디션’  
로드바이크·MTB 등 2개 구성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브랜드 N의 DNA를 담은 자전거를 선보인다. 브랜드 N이란 기존 모델에서 가속, 코너링, 제동 등 성능을 업그레이드 한 차량을 지칭한다.

현대차는 브랜드 N과 국산 프리미엄 자전거 브랜드 ‘위아위스’ 협업 프로젝트로 탄생한 ‘N 스페셜 에디션 자전거’를 26일 공개했다. N 스페셜 에디션 자전거는 ▲로드바이크 ‘와스 프로 N’ ▲MTB(산악자전거) ‘헤시온 N’ 2개의 상품으로 구성된다.

N 스페셜 에디션 자전거는 위아위스의 기존 상품인 ‘와스 프로’와 ‘헤시온’ 프레임의 카본 레이업을 새롭게 변경해 카본 소재의 고유무늬를 살렸다. 이와 더불어 N의 상징인 퍼포먼스 블루와 액티브 레드 칼라를 부분 적용하는 등 N 브랜드를 활용해 고성능 이미지를 표현했다.



현대차 벨로스터 N 및 N 스페셜 에디션 자전거.

또 전면부에는 N 브랜드를 대표하는 로고를 부착해 스페셜 에디션의 특별함을 강조했다.

박경래 전 한국 양궁 국가대표팀 감독이 설립한 위아위스는 양궁 활 제작 기술에서 터득한 그래핀 나노카본 소재를 자전거 프레임에 접목해 일반 고객뿐만 아니라 국가 대표 선수들을 위한 자전거를 제작하고 있다.

현대차는 스피드와 기술력이 중시되는 공통분모를 지닌 고성능차와 자전거 브랜드의 협업을 통해 N 브랜드의 철학인 ‘운전의 재미’를 고객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N 스페셜 에디션 자전거는 추후 위아위스 전문 매장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며,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과 고양에서도 각각 26일, 28일 전시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 미지수... 영향 불가피”

» 1면 ‘제주항공, 이스타 인수’서 계속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스타항공의 부채비율은 약 484.4%에 달하며 자본잠식률은 47.93%로 부본자본잠식 상태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2018년 기준 1년 이내 6769억원, 5년 이내 1조9487억원 등 2023년까지 총 2조6256억원의 항공기 리스료를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됐다는 데 있다. 제주항공은 ▲대구-다낭 ▲인천-마카오 ▲대구-타이베이 등 중화권 노선을 일정 기간 운휴하기로 했으며, 이스타항공도 ▲인천-다낭 ▲인천-나트랑 ▲인천-가오슝 등 대부분 노선에 대해 비운항하기로 결정했다.

양사는 이미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제주항공은 지난 12일 위기경영체제에 들어갔으며, 이스타

항공은 임직원 2월 급여를 40%만 지급하고 한때 항공유가 공급 중단되기도 했다. 제주항공은 비상경영체제에 따라 경영진이 임금의 30% 이상을 반납했고, 내달부터는 임금의 70%를 보장하는 유급휴직 제도를 실시한다. 이스타항공은 임직원 급여 40% 지급에 대해 ‘최소한의 회사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실사 과정에서 생각보다 비싼 이스타항공의 비행기 리스료 등이 파악된 상황”이라며 “생각보다 지분 구조가 복잡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탈이 없도록 좀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측도 크게 반박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이슈 때문에 생각보다 본업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게 얼마나 장기화 될지 알 수 없어 인수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LG전자, 벤츠 모기업 獨 다임러서 ‘우수 공급사’ 선정

LG ‘터치 스크린’ 영감 부문 수상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기여 평가

LG전자가 독일 다임러 AG 우수공급사로 선정됐다.

LG전자는 최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다임러 본사에서 열린 ‘다임러 서플라이어 어워드 2020’ 행사에서 ‘영감 부문’ 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다임러는 공급업체 중 고객가치 기여도와 향후 비전 등을 평가해 이 상을 시상한다. 올해에는 450여개 업체 중 4개 부문 10개 업체를 추려냈다. LG전자는 2018년부터 다임러에 차량용 터치스크린을 공급 중이다.

LG전자는 차량용 터치스크린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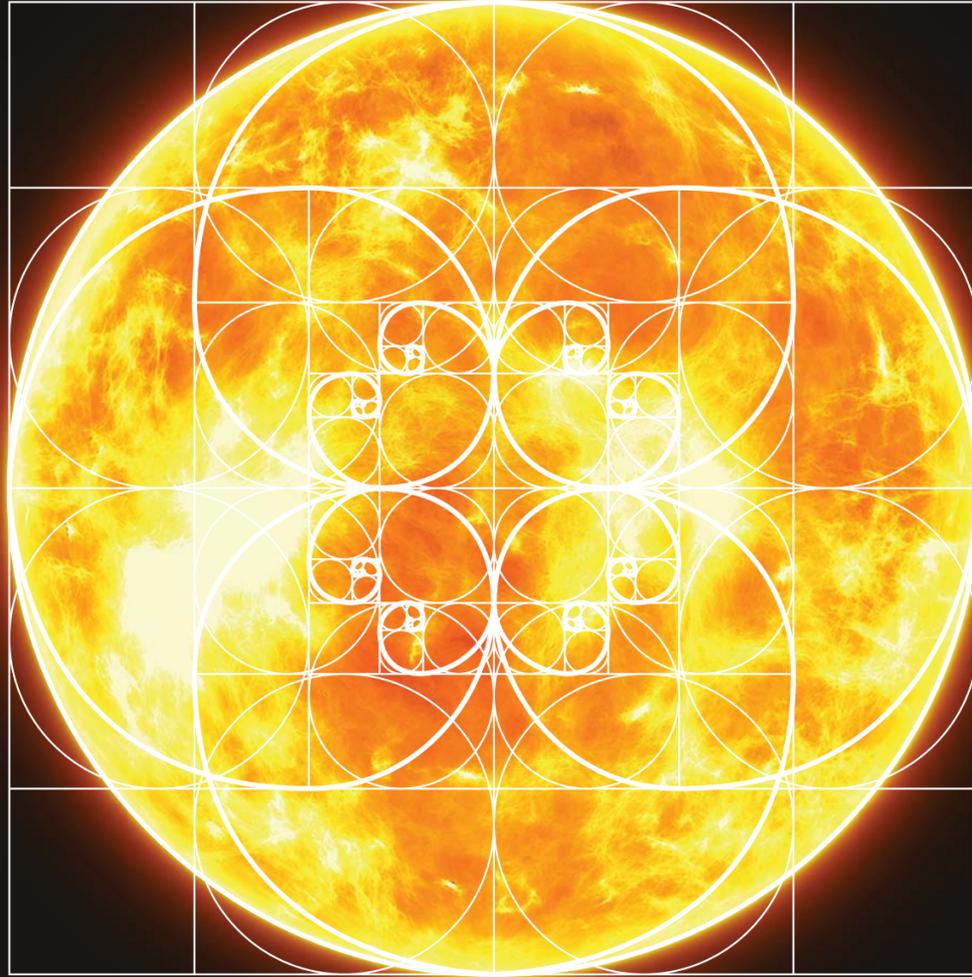


LG전자 VS스마트사업부장 은석현 전무(오른쪽)가 독일 다임러 본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모습. /LG전자

임러의 인간공학적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HMI)’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LG전자는 전장사업인 VS사업본부

를 신설한 2013년 이후 처음 다임러에서 상을 받았다. 글로벌 프리미엄 제조업체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봤다. /김재용 기자 juk@



## 한화는 고갈되지 않는 단 두 가지 자원에 집중합니다 인간의 창의성 그리고 태양에너지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누군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뜻을 모은다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에너지빈곤문제  
이 거대한 지구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화와 세계는 이미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UN의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맞춰  
77억 명 누구나 더 쉽고 더 편리하게 태양광에너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앞선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며  
지구촌 곳곳의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이 내일도 변함없이 계속되도록  
지속가능한 친환경 솔루션을 연구합니다

수출 부진  
생산량 감소  
노조 이슈

## 나오는건 한숨 뿐... 시름 깊어지는 완성차 3사

## 중견 완성차 3사 상황 분석

국내 자동차 산업이 생산량 감소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졌다. 판매 및 수출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노조 이슈,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쳐 생산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중견 완성차 3사의 한숨은 유독 깊어지고 있다. 예상보다 불황의 터널이 길어지면서 중견 3사가 처한 상황을 분석해봤다.

##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속도

## 고임금 저효율 구조는 문제

트레일블레이저 출시로 시장의 관심을 모으는데 성공했던 한국지엠은 중견 3사 중 그나마 유일하게 경영정상화 계획이 명확한 기업이다.

카허 카젠 한국지엠 사장은 지난 1월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행사에서 "지난해 마무리하지 못한 임단협 재개와 경영정상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고, 김성갑 한국지엠 노조위원장은 "지난 2년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영정상화는 노사 공동의 목표인 만큼 필요한 부분은 협력할 것"이라고 말해 노사간 위기



한국지엠(GM) 부평공장

돌파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지난 17일 창원공장에서 노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완성차 누적 생산 500만대 기념식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카허 카젠 사장과 김성갑 노조위원장은 '무결점 품질' 결의를 다지며, 창원산 경차들의 글로벌 선전을 기원했다.

그 동안 경영정상화를 위해 세운 계획이 차례로 실현되면서 멈춰 있던 판매량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1월 내수 판매 4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콜로라도와 트레버스 인기로 수입차 시장에서도 월 1000대 이상 판매되며 상승 중이다.

하지만 아직 불씨는 남아있다. 지난해 전면파업까지 불사했던 노조가 새 임단협을 앞두고 임금인상카드를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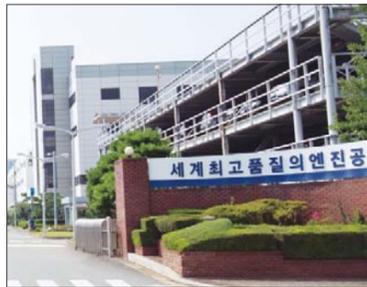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꺼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해결하지 못한 단체협약 원상회복, 정년 연장, 조합원 처우개선과 같은 과제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지엠의 경쟁력 복원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은 쿠페형 스타일의 준중형 SUV XM3로 반등의 기회를 잡겠다는

르노삼성차 XM3 출시에도  
수출 기근·경쟁사 혈전 예상

각오다. 새로운 스타일의 SUV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은 뜨겁다. 다만 XM3의 해외 물량 배정 여부가 연말이나 결정돼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최소 8~9개월은 내수로 버텨야 하는데 국내 소형, 준중형 SUV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경쟁사와의 혈전이 예상



쌍용차 창원공장 입구 전경.

된다.

르노삼성 노조의 경직된 사고는 회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벌써부터 노조는 XM3 성공 출시 격려금 등 벌써부터 제 몫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XM3 출시 행사가 취소되는 등 신차 효과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노조는 임금 인상 및 근무강도 완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거론해 회사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르노삼성은 노사 관계 악화로 미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최근 낫산 '로그'가 단종되고 생산이 확정된 XM3마저 노사갈등으로 르노 본사에서 물량 배정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XM3의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올해 생산량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쌍용차 신차·주력모델 부재  
노사 위기극복 의지 희미해

쌍용차는 올해 벼랑 끝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노사 모두 위기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신차 부재와 주력 모델 부진으로 상황은 가장 어둡다.

실적을 이끌던 주력 차종 티볼리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경쟁 모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판매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고효율 가솔린 엔진을 추가하고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등 야심 차게 준비한 신형 코란도는 시장 축소를 피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쌍용차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2819억원에 달한다. 주력 모델이 부진에 빠진 가운데 미래 계획 수립도 난관에 빠졌다. 신차는 올 4분기나 돼서야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는 어려운데 노조가 당장 눈 앞의 이익만 쫓아 얼마간의 이익을 더 얻어내려 한다면, 이는 결국 회사와 노조 모두를 주저 앉힐 뿐"이라며 "국가가 없으면 경제도 없듯이 회사가 없으면 노조도 없다는 사실을 집행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비밀번호·지문 등 개인정보  
'디지털개인 금고'로 지킨다

## 삼성전자 모바일 보안솔루션 공개

전력·레이저 이용 물리적 해킹 방어  
보안칩 국제평가서 'EAL 5+' 획득

삼성전자가 모바일기기 보안 혁신에도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26일 모바일기기용 통합 보안솔루션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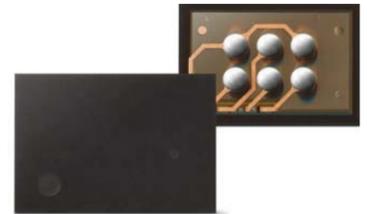
솔루션은 보안칩과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전력이나 레이저를 이용한 물리적 해킹을 방어할 수 있는

'S3K250AF'와 독자 보안소프트웨어다.

비밀번호와 지문 등 민감 정보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철저히 지켜낸다.

보안칩은 국제공통 평가에서 역대 최고 점수인 'EAL 5+'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번 보안 솔루션은 앞서 출시된 삼성 갤럭시 S20에 탑재됐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모바일 보안을 강화하며 시장



갤럭시 S20에 탑재된 보안칩. /삼성전자

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LSI사업부 마케팅팀 신동호 전무는 "삼성전자는 스마트카드IC, IoT칩 등 높은 보안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오랜 경험으로 기술력을 검증받았다"며 "더욱 뛰어난 보안 솔루션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고 나아가 새로운 모바일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 박재완 의장 "이사회 본연에 역할 충실"

## &gt;&gt; 1면 '순환 대신 외부영입...'서 계속

최근 이사회를 열고 신입 이사회 의장에 전 기획재정부 장관인 박재완 사외이사를 선임하며 파격 행보를 보인 것. 외부 인사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맡은 것은 삼성전자가 설립된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외부 인사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박재완 이사회 의장은 삼성전자 이사회 대표로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소집해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이사회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재계에서는 외부 인사인 박 의장과

김 위원장이 힘을 모아 총수와 경영진의 투명경영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의장은 준법감시위와 소통하면서 주주 가치 제고 등 이사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총수가 황제경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재계의 모습을 보면 시대가 바뀐에 따라 3·4세 재계 총수들도 글로벌 기준에 맞춘 투명 경영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기업이 갖는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기업이 변해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기업 스스로 자발적인 변화를 하도록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효성첨단소재, 獨 타이어 엑스포 참가

## 고강력·고탄성 타이어코드 기술 소개

영업·기술미팅으로 제품 판매 확대

효성첨단소재가 글로벌 타이어 보강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나섰다.

효성첨단소재는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타이어 전시회인 '타이어 테크놀로지 엑스포 2020'에 처음 참가해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화에 나섰다. 26일 밝혔다.

독일에서 200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타이어 테크놀로지 엑스포는 세계 최대 타이어 전시회다. 올해는 세계 각지의 타이어 관련 300여개 업체들이 참

가해 최신 제조기술 및 제품을 소개하고 130여개 학술 발표 및 단기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효성첨단소재는 이번 전시회에 처음으로 참가해 글로벌 타이어보강재 업체로서의 기술력과 품질을 알리고 고객과의 영업·기술 미팅을 통해 제품 판매 확대에 나선다. 특히 이태정 타이어보강재 PU 섬유영업 담당 상무가 타이어보강재 역할에 대한 학술발표에 참가한다. 이 상무는 학술발표를 통해 타이어 경량화를 위한 고강력 타이어코드, 타이어 성능 향상을 위한 고탄성 타이어코드 등 효성첨단소재의 기술력을 글로벌



효성첨단소재가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타이어 테크놀로지 엑스포 2020'에 부스를 열고 처음으로 참가했다.

/효성첨단소재

별 타이어 메이커들에게 소개한다.

한편 효성첨단소재는 신성장동력으로 탄소섬유에 총 1조원을 투자해 2028년까지 연산 2만4000톤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SK매직, 식기세척기 판매 120만대 돌파

터치 온·트리플케어 제품 '인기'

SK매직이 업계 최초로 식기세척기 누적 판매 120만대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굳혔다.

26일 SK매직에 따르면 대표 제품인 파워워시 식기세척기 '터치 온'은 지난 2018년 출시한 이후 지금까지 4만대 이상 팔리는 등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제품은 SK매직만의 세척 기술인 '파워워시' 기능을 적용해 상·중·하단 회전 날개에서 강력한 물살의 세척수가 분사된다.

디자인도 뛰어나다. 터치만 해도 손

쉽게 문을 열수 있는 '터치 온' 버튼과 리얼스테인리스 소재를 적용한 심플한 디자인으로 주방 인테리어 효과를 높였다.

지난 1월 선보인 트리플케어 식기세척기 역시 출시 두 달도 안돼 1만대 이상 판매되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국내 최초 식기 세척 기능을 넘어 건조와 보관까지 토털 케어가 가능한 트리플케어 식기세척기는 사각지대 없이 세척이 가능한 와이드 무빙 세척 날개를 비롯해 UV청정케어 시스템, 듀얼 열풍 건조 기능 등 편리한 기능을 두루 갖추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사업보고서 늦어도 징계 안한다

**금융위, 주총 안전개최 지원방안  
지연 제출 우려 기업·감사인들  
28일부터 금감원 등에 심사신청  
통과면 과징금 등 행정제재 면제**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기업들이 사업보고서 등을 지연 제출해도 관련 징계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렵다면 주총을 연기하거나 속행해 재무제표 승인을 받도록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의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의 경우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본지 2월26일자 1면 참조〉

재무제표 지연 제출 우려가 있는 기업과 감사인들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검토 후 다음 달 말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회사의 결산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이어야 하며 회사의 주요사업장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 중이어야 한다. 특히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감사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지연된 경우가 해당한다. 감사인의 경우에는 코로나19나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사무실 폐쇄 등으로 외부 감사를 기한 내 마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한다.

금융위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

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주총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해서 4월 이후 주총을 다시 개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으나 외부감사 지연이나 코로나19 여파로 불가피하게 정기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주주의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자 위임장 제도를 활용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이 중국 종속회사 결산 및 외부 감사 지연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과 기한 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0년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위원들과 합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코스닥 시장 성장주 주목 낙폭 과대주 옥석 가려야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코스닥 시장에서 성장주를 주목하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장주가 급리 인하 국면에서 상대적인 수혜가 크다는 분석 때문이다. 하락장에서 실적 모멘텀이 뚜렷하면서도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낙폭 과대주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급리인하 효과를 입을 수 있는 성장주에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금리가 낮아지면 할인율도 낮아져 당장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멘텀을 갖춘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저금리 기조를 활용한 선제적인 자금 확보로 할인율도 낮출 수 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당초 한은이 2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24일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졌다”며 “이번 급리인하 이후에도 0.75%까지 낮아질수 있다는 기대가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중국은 금융당국이 빠르게 정책 금리 인하에 나서며 코로나19로 인한 낙폭을 줄였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스와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금리인하와 추경 편성으로 경기 둔화를 완화했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준비한 경기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

는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닥 시장 성장주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매수세에서도 포착됐다. 포착됐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변동성이 크지 않은 코스피 대형주를 선호한다. 그러나 코로나 쇼크로 장세가 출렁이던 최근 3거래일(24일~26일)은 정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이 기간 외국인인 코스피 시장에서 2조 3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팔아치웠으나 코스닥 시장에선 2000억원어치를 매수했다. 4% 가까이 급락하며 2070선까지 떨어졌던 24일에도 코스닥 시장에서 420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반등이 예상되는 바이오 종목을 주로 담았다. 외국인인 3일간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1~4위로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알테오젠, 에이치엘비, 헬릭스미스가 이름을 올렸다.

최근 증시 조정은 중장기 관점에서 낙폭 과대주를 저점 매수할 좋은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초 업종별 수익률 격차 확대를 높였던 반도체와 IT(정보기술) 중심의 주도주 양상도 여전히 전망이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업종 등락은 혼조세를 보이겠지만 정부 부양책과 내수 촉진책에 따라 낙폭이 과대한 유통·내구 소비재에서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고른다면 IT 부품 등 중간재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송태화기자 alvin@

## KRX, 코로나19·총선 관련 테마주 집중 감시

**주가·거래량 급등 40여개 종목  
신종 불공정거래 조기 탐지 목적**

한국거래소(KRX)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21대 총선 관련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26일 2020년 주요사업 계획에서 “신종 불공정거래를 조기 탐지해 신속하게 적발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감위는 현재 40여개 종목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달 20일 이후 주가와 거래량이 급등한 기업이 대상이다. 거래소 측은 사이버 감시와 불건전 주문 계좌에 대한 예방조치, 시장정보발동 및 투자유의안내 등의 예방활동을 통해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종목은 신속하게 거래분석과 심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매년 총선 때마다 반복됐던 정치 테마주도 집중 관리한다. 시장 내 각종 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마 관련 종목을 기획 감시해 공매도 및 사회적 이슈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유의안내, 사이버유의사항 등을 적극 활용해 투자자의 경각심을 환기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검찰,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산기를 앞둔 상황에서 상장폐지 우려 한계기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결산실적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및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자금조달, 신사업 진출 등

기업 사냥형 불공정거래로의 발전 가능성을 주시할 방침이다.

여기에 상장기업 인수 등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불공정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한 기업사냥꾼의 문어발식 기업인수에 대비해 종목 간 연계감시도 병행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사냥형의 단계별 혐의전력자 개입 여부, 기업공시, 언론보도, 매매내역 등을 종합분석한 후에 필요할 경우 즉각 심리착수와 신속 혐의 확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감리제도를 정비해 자율규제에 대한 실효성도 높인다. 올해 감리적출기준, 모니터링 예시기준 등 관련 기준들의 연계성과 현행 기준상 적출의 적정성·유효성 등을 정비한다.

또한 감리 예고 주기 명확화, 회원의 조치내용 보고의무 도입 등 회원사 대상 감리예고 제도 개선, 제재 관련 사항의 공개범위 확대, 제재금 부과간 단 순화 등 회원제제 프로세스도 개선할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 alvin@

### 하나금융투자

#### “해외주식 하나머니로”

하나금융투자는 하나금융그룹 통합 멤버십 포인트인 ‘하나머니’로 바로 해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머니’로 하나멤버스에서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손님들은 별도로 하나금융투자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환전 절차 없이 하나머니로 해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신규 서비스 론칭을 기념해 3월 31일까지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 미래에셋자산운용, 첫 리츠 상장 추진

‘맵스리츠 1호’ 국토부 인가 획득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맵스 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맵스리츠 1호)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맵스리츠 1호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설립한 첫 리츠다. 올해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 수원 영통구에 있는 복합건물 광고센터털푸르지오시티 내 상업시설에 투자를 한다.

광고센터털푸르지오는 지하 8층, 지상 17층 규모로, 이 가운데 상업시설 면적은 8만6천190㎡ 규모다.

향후 약 15년 동안 책임 임대차 계약

과 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어 연 6%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우량한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것이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의 설명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코람코자산신탁으로부터 광고센터털푸르지오 상업시설을 매입하기 위해 미래에셋대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11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인수 금액은 약 2800억원으로 미래에셋대우가 후순위 담보대출 등으로 최대 102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금융기관 대출과 임대차보증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송태화기자

## ‘포레나 부산 덕천’, 사이버 견본주택 대체

한화건설, 코로나19 확산 방지

한화건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초 분양 예정인 ‘포레나 부산 덕천’의 견본주택을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대체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3월 초 분양 시기에 맞춰 포레나 부산 덕천 분양 홈페이지 내 구축되며 VR(가상현실) 촬영 화면을 제공한다. 또한 홈페이지 내에는 입지, 단지 배치, 특장점 등의 상세 정보를 충분히 배치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코로나19 확진 방지를 위해 청약당첨자 발표일까지 운영하지 않고 정당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를 대상으로만 운영한다. 견본주택 관람시 감염 예방을 위해 서류제출 기간과 지정계약기간 내 예약방문제를 시행하여 견본주택 방문 인원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포레나 부산 덕천은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57-12번지 일원(덕천 2-1



한화건설 ‘포레나 부산 덕천’ 조감도.

구역)에 들어서는 재건축 단지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636가구로 전용면적별로는 ▲59㎡ 243가구 ▲74㎡ 263가구 ▲84㎡ 130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분양분은 294가구로 구성된다.

한편 포레나 부산 덕천은 3월 초 분양 예정이며 세부적인 청약 일정은 추후 분양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

／정연우 기자 yw964@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이 머리를 맞댔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금융위원회

## “초저금리 대출, 착한임대료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신속 지원”

금융위,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은성수, 현장 신속대응 협조 당부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코로나19와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 조찬간담회를 열고 은성수 위원장과 정책금융기관장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참석하고,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대구에서 현장을 직접 살피고 있어 불참했다.

이날 금융위원장과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코로나 19관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에서 마련한 신규자금 2조원의 집행실적을 점검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금융애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코로나19로 어

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초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하고, 기업은행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임대료’도 시행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자금지원 효과가 확실하게 체감되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존재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윤대희 이사장은 대구에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지역현장상황을 직접 살피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코로나 피해기업 우대보증과 주력산업 융통화 회사보증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또 이번 지원으로 인한 정책금융기관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현장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대한 확실히 면책하겠다”며 “정책금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시, 코로나19 지원에 따른 이익 감소분은 반영하지 않고 지원 노력은 가점 등을 통해 추가로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코로나’에 건설사도 초비상

# 근로자 확진자 발생... 현장 폐쇄

건설 현장 근로자 감염 잇따라  
출장·방문 금지 등 대응 총력

부동산 시장도 거래문의 급감  
코로나 감염 우려에 대면 피해

12·16부동산대책 이후 얼어 붙은 부동산시장이 ‘코로나19’ 악재로 매수·매도자 모두 자취를 감추며 비상이 걸렸다. 건설업계는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해당 현장을 폐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건설 현장 근로자는 지난 21일 경북 성주대교 확장공사 현장 1명, 22일 경기도 이천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현장 4명, 포항 해병대 공사 현장 1명 등 총 6명이며, 경기도 성남 분당 건설현장에서도 확진자 1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사들은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현장 근로자들의 위험지역 출장이나 방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방역작업과 예방 교육에 나서는 등 코로나19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설현장은 현재 폐쇄 조치했다”며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 중이며 전사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직원들의 건강을 수시로 살피는 중”이라고 전했다.



부동산시장이 정부의 규제대책에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꽁꽁 얼어 붙고 있다.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건설업계가 혼란에 빠지자 국토부는 ‘코로나19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행동수칙을 비롯해 의심환자 또는 확진자 발생 시 사후조치가 포함됐다.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공공현장은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 등이 이뤄진다.

대면거래가 불가피한 부동산 거래 시장도 매수 문의가 급감했다. 지하철 3호선 대치역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주인이 집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이라며 “매수 문의가 거의 없어 휴업에 들어간 중개업소들도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강남구는 소형 위주로 거래 될 뿐 중대형 아파트는 거래가 거의 없다”며 “강남구 삼성동의 경우 2월 1건이 거래됐다”고 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와 꼬마빌

딩은 물론 상가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1.7%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경기 침체에 코로나19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소셀커머스, 배달 앱 등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급증하고 오프라인 매장은 한산해진 모습이다.

아파트 분양시장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분양 일정을 미루거나 모델하우스를 온라인 개장으로 대체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올 봄 아파트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 전망이 제기된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연 교수는 “기존 부동산 규제정책 여파와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전망”이라며 “외부출입이 어려워진 만큼 봄철 이사 수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 민간공원 특례사업 따라 숲세권아파트 주목

쾌적한 환경에 수요자들 관심 높아  
㈜한양, 삼산공원 특례사업 진행  
부지 내 한양수자인 1252가구 분양

오는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공원일몰제로 지정해제되는 공원은 전국적으로 397km<sup>2</sup>에 달한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오랜 시간동안 공원시설로 지정됐으나 진전되지 않던 곳을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공원으로 공동 개발하는 제도다. 민간은 5만m<sup>2</sup> 이상 도시공원 사유지를 매입·개발해 70%를 공원으로 조성한 뒤 기부채납하고 30% 부지에는 아파트와 같은 비공원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에 민간사업자들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재정이 부족한 일부 지자체들도 민간 주도로 공원을 개발하면 일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보상을 기다리던 토지 소유자에게도 희소식이어서 민·관·개인이 모두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평가다. 따라서 민간공원 조성계획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가 관심 대상이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분양된 단지의 인기가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도 신규 특례사업지로 쏠리고 있다.



전남 순천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 투시도.

전남 순천에서는 ㈜한양이 전남 최초 민간공원조성(삼산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한다. 한양은 삼산자연공원 부지 안에 있는 전남 순천시 용당동 175에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 79~110m<sup>2</sup> 1252가구를 분양한다. 단지 인근에는 순천IC, 삼산로, 중앙로 등 교통환경이 갖춰져 있고, 삼산공원 외 봉화산, 동천천변공원 등이 자리하고 있어 쾌적하다. 단지 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이 예정돼 있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산 111-1 일원에 용인도시계획시설(영덕1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를 공급한다. 단지 인근에는 기흥호수공원, 영통체육문화센터, 태광CC 등과 영통지구, 흥덕지구, 기흥역세권 등이 있다.

이밖에도 부산에서는 명장공원, 동

래사적공원, 사상공원, 온천공원, 덕천공원 등 사업지 5곳(225만1628m<sup>2</sup>)에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을 체결해 도심공원 5곳과 4361가구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개발 부지 면적은 부산시민공원(47만3911m<sup>2</sup>)의 4배 넓이에 달한다.

제주에서는 총 8262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오동동 1596번지 일대 총 51만 769m<sup>2</sup> 중 81.7%인 42만 5590m<sup>2</sup>에 콘서트홀과 전시장 등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나머지 9만 5426m<sup>2</sup>에는 15층 높이의 공동주택 1630가구(임대주택 163가구를) 건립된다.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석정근린공원이 민간개발을 통한 공원으로 조성된다. 평택시는 지난달 22일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상대상자로 평택석정파크드림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석정근린공원은 민간 사업부분 총면적 25만여m<sup>2</sup> 가운데 78%인 19만 여m<sup>2</sup> 면적이 공원으로 조성되며, 나머지 22%인 5만여m<sup>2</sup>에 오는 2023년까지 공동주택 1400가구가 건립된다.

청주시에서는 전체 17만3454m<sup>2</sup>의 흥골공원을 포함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확정된 8개 공원 중 구룡공원과 영운공원을 제외한 6개 공원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 흥골공원에는 2025년까지 4만9349m<sup>2</sup>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 저축銀 수신금리 연이어 하락 시중은행과 변별력도 떨어져

이달들어 저축은행의 예금수신금리가 연이어 떨어지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저축은행도 고금리 이자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까지 덮치면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된다. 계속되는 금리 인하에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과의 변별력 또한 많이 떨어지고 있다.

26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1.93%다. 불과 지난달에만 해도 6개월 만기 상품을 제외하고는 2%대를 유지하다 저금리 기조에 못이겨 1%대까지 떨어졌다.

저축은행 업계는 예금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올해부터 시행되는 예대율 규제에 따라 지난해 예수금 확보가 절실했는데 여기에 퇴직연금 정기예금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여유가 생겼다. 지역 경제도 침체되면서 대출규모가 줄었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것조차도 버거워졌다는 분석이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들도 이달부터 예금 금리를 연이어 인하하고 있다. 우선 신한저축은행은 지난 3일부터 정기예금 금리를 0.2%포인트 내렸다. 이에 따라 정기예금 12개월 만기가 1.6%로 변경됐고 24개월은 1.7%, 36개월이 1.8%로 각각 적용됐다.

이어 SBI저축은행이 13일부터 0.1%포인트를 내리며 36개월 만기 정기예금의 수신금리가 1.9%로 인하했다. 또 17일부터는 KB저축은행이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정기예금, 자유적립예금 상품의 이자를 0.2%포인트씩 일괄 인하했으며 19일부터는 OK저축은행이 OK정기예금과 OK e-정기예금의 1년만기 상품 금리가 연 2.0%에서 1.9%로 떨어졌다. 같은 상품 3년 만기는 2.1%에서 2.0%로 인하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alton**  
DO THE BEST, BE THE STYLE

www.altonsports.com

고객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전기자전거

**alton**



## E-ALTON ECONOVA

자전거 전용 도로 진입 가능 PAS 전용모델

- 삼성 SDI 리튬 이온 배터리 3-4 시간 완충
- 완충 시 60km 주행 가능
- 전국 A/S망 구축



# “아기 왜 우는걸까”... 초보 엄마, AI에게 물어봐!

## AI 기업인

인공지능 육아서비스

### 강수경 아이앤나 대표

아이를 처음 키우는 초보 엄마들은 아기가 울면 당황스럽기 마련이다. 아기가 배가 고플지, 졸린지, 기저귀가 젖었는지 이유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몸이 불편해서 울던 아기에게 배가 고플 것 같아 분유를 먹였는데 토를 하면 초보엄마는 놀라서 병원에 달려가기도 한다.

AI 기반 육아플랫폼 기업인 아이앤나는 인공지능(AI)으로 아기 울음소리를 5가지로 분류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해 초보엄마들의 고민을 덜어줄 전망이다.

강수경 아이앤나 대표는 “신생아 울음소리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AI 아기 울음소리 분석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상반기 안에 ‘AI 보모’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아기들이 특정한 상태에 있을 때 우는 소리가 공통된 주파수를 가진다는 사실을 AI 분석으로 밝혀냈는데, 주파수 분석을 통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법대와 사범대를 졸업한 강대표는 IT 컨설팅회사인 액센츄어구

엔더슨컨설팅)에 입사해 컨설턴트로 근무했으며, 디아지오코리아에서는 조직관리 전문가로 일했다. 그는 아이 양육에 집중하기 위해 수년간 일을 쉴 때도 틈틈이 회사 컨설팅 업무를 맡아 진행하기도 했으며, 올해 카이스트의 문술 미래전략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는 대학원에서 ‘AI가 육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 논문을 썼을 정도로 AI 등 IT가 육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많았다. 강 대표는 지난해 말 아이앤나에 공동대표로 입사해 마케팅, 비즈니스 전략 등 사업 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이경재 대표는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으로 건물자동제어시스템으로 장영실상을 수상한 바 있는 유능한 개발자인 만큼 개발을 총괄하고 있으며, 광운대와 공운으로 AI 소리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아이앤나의 AI 보모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구매해야 한다. “기기의 카메라를 통해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아이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기기를 아기 요람에 붙이거나 세워두면 아이의 울음소리를 분석해 아이의 상태를 구분해 줘요.” 아이앤나는 이미 기기에 대한 K C인증도 획득했다.

기기에서 수집된 소리 중 아기 음성만을 감지해 서버에 보내주고 음성을 AI가 분석한 결과를 앱이나 기기에 내장된 스피커로 알려준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졸리다, 배가 아프다, 기저귀가 젖었다, 몸이 불편하다, 배가 고플다 등으로 구분된다. 또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아이를 지켜보던 할머니가 ‘엄마 곧 돌아와. 조금만 기다려’와 같은 말을 스피커로 전할 수도 있다.



아이앤나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통해 수집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분석해 5가지 상태 중 하나로 분석해주는 ‘AI 보모’ 서비스를 상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다. /아이앤나

아기 울음소리 AI가 학습해 주파수 분석 5가지로 분류... ‘AI 보모’ 상반기 서비스 국내 출시 후 동남아 등 해외진출 계획도

산후조리원 CCTV ‘아이보리 베베캠’ AI가 아기 배냇짓 인식해 부모에 알림

”



강수경 아이앤나 대표 /손진영 기자 son@

그는 “AI 학습을 위해서는 아이 울음소리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산후조리원에서 설치된 CCTV를 통해 아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아이보리 베베캠’ 서비스를 수년간 운영해왔기 때문에 신생아들의 수많은 울음소리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앤나는 2017년 6월 설립 후 SK브로드밴드와 기술 제휴를 맺고 저장장치가 별도로 필요 없는 클라우드 기반 CCTV를 산후조리원에 설치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 서비스가 설치된 조리원은 180여개에 달한다.

신생아 침대마다 CCTV가 1대씩 설치돼 있는데, 지금까지 설치한 카메라만 3700여대예요. 산후조리원에서 요청해 설치 완료되면 입실하는 엄마들은 ‘아이보리 앱’만 설치하면 아이를 볼 수 있어요.”

아기의 데이터는 보안이 중요해 아기엄마가 최대 5명에게만 아이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 아이 영상은 무료

로 볼 수 있지만, 영상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구매권을 사용해 15초 단위로 동영상 내려받을 수 있다. 무제한 다운로드가 가능해 아기 표정이 언제 바뀔지 몰라 계속 다운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산후조리원은 감염 위험이 커 부모 외에는 산후조리원을 방문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아빠도 제한적으로 출입이 돼요. 그래서 아이를 보고 싶어하는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베베캠을 좋아하세요.”

그는 아이의 배냇짓을 보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AI가 아이의 배냇짓을 인식하면 부모에게 알림을 줘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이앤나는 또 임신육아교실도 운영하고 있으며 앱과 연계해 ‘베베몰’도 운영하고 있다. “저희 회원들에게 시중보다 5~10% 이상 싼 가격에 육아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모라는 점을 입증하고 회원으

로 가입해야 해요. 이번에 코로나19로 베이비 페어가 취소되면서 ‘온라인 베이비 페어’를 개최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큰 호응을 얻었어요.”

좋은 아이템이 뜨면 카페에서 서로 공유하다보니 쇼핑물 판매량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분유·백신 등 광고도 늘어, 베베몰이 상반기에 손익분기점(BEP)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 대표는 아이앤나가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근 신한퓨처스랩 스타트업 6기로 선발된 만큼, 올해 말경에 신한과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재 벤처캐피탈(VC) 등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투자를 받으면 기술 개발에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기업들 중에 아직 수익을 내는 곳이 드문데 저희는 AI 육아서비스로 바로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국내에서 AI 보모 등 기술을 검증받으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해외에도 진출할 생각이예요.”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 LG생활건강, 로봇 직원 ‘알 파트장’ 채용

237명 투입 업무 로봇 8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박차

LG생활건강이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생활건강은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로봇업무자동화(RPA) 시스템을 ‘알 파트장’을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프트웨어로봇 알파트장은 사람이 컴퓨터(PC)로 처리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학습해 PC에서 이뤄지는 정형화되고 사람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한다. 사내에서 빈번하게 작업하는 엑셀 업무와 특정 전산시스템의 조회 및 다운로드, 입력은 물론이고 메일 송·수신이 가능해 최종 결과 자료를 담당 임직원에게 전송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알파트장은 영업, 회계, 마케팅 등 다양한 부서에서 총 8대가 활약하고 있다. 이들(알파트장 1~8)은 정식 인사 등록까지 마쳐 사내 통신망에 ‘인명(동료)’으로 검색되고 알파트장의 도움이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는 게시판도 최근 개설됐다.

현재 LG생활건강에서 알파트장이



LG생활건강 본사가 위치한 LG광화문빌딩

수행 중인 업무는 249개로, 237명이 연간 총 3만9000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실적 보고, 매출 및 주문 처리 등 수작업이 많은 영업 영역에 집중적으로 활용돼 영업사원이 본연의 업무인 영업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알파트장의 업무 성공률은 RPA 최고 수준인 95%를 기록하며 점차 모든 부서에서 수행하는 대표적인 수작업 업무는 알파트장이 인계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LG생활건강 RPA 운영 담당자는 “단순·반복 업무는 로봇이, 인지·분석 업무는 사람이 하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업무 혁신과 고도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 넷마블, 마블과 맞손... 美 게임쇼서 ‘깜짝발표’

‘마블 퓨처파이트’ 이어 두 번째 행사 마지막날인 내달 1일 공개

넷마블은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미국 보스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북미 게임쇼 ‘팍스 이스트 2020’에서 마블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사 마지막날인 내달 1일 ‘마블 미스터리 패널’라는 이름의 세션이 진행되며, 이 자리에서 넷마블은 마블과 함께 하는 새로운 게임을 공개한다.

‘마블 미스터리 패널’에는 넷마블 북



미법인장 ‘심철민’, 마블 게임즈 부사장 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빌 로즈만’, 마블 게임즈 프로덕션 디렉터 ‘대니 쿨’, 마블코믹스 작가인 ‘마크 슈머라크’가 패널로 참가하고, 마블 뉴 미디어의 CEO이자 부사장인 ‘라이언 페나고스’가 사회자로 나선다.

지난 2015년 넷마블은 마블과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마블 퓨처파이트’를 출시해 전세계 1억20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프로젝트는 넷마블과 마블이 공동 작업한 두 번째 게임이 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 보스턴 매년 열리는 팍스 이스트는 메이저 게임 전시회 중 하나다. 신작 전시, 게임 대회, 코스튬플레이 등 이용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진행해 ‘게이머들의 축제’라고도 불린다. /김나인 기자 silkni@

## 가스공, 대구에 마스크 7만장 기증

중소·소상공인 대상 상생펀드도

한국가스공사가 대구 시민들을 위해 마스크 7만3000장을 지원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코로나19가 대구·경북지역에 집중 확산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들을 위해 2억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

다. 가스공사는 먼저 기부금 2억원으로 취약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인 마스크 6만 7340장을 구입해 대구시에 기증한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약 3000만원을 긴급 투입해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마스크 5700장과 살균소독제 570개를 구매했다. 이 물품들은 이달 26일 대구 전역의 노인복지시설 19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가스공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 특별 지원을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확진자 발생지역 내 영업장 보유 기업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한 곳당 5억원을 한도로 최대 2.7%까지 금리 감면(기본 1.5%, 추가 1.2%)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마스크 3배↑ 비결은...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노마진 유통

중기부 '마스크 공급 협약식' 개최  
삼성전자, 中소 스마트공장 구축  
화진산업, 마스크 생산성 2.5배 ↑  
공영쇼핑에 '노마진' 100만장 판매



26일 서울 상암동 공영쇼핑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자발적 상생 협약식'에서 (왼쪽부터)김종호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 이현철 화진산업 대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하춘욱 씨엔투스성진 대표, 전해상 도레이첨단소재 대표,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영쇼핑

대기업의 전폭적 지원으로 마스크를 제조하는 한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2.5배 늘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마스크 수급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쇼핑은 연결 역할에 충실하며 지원 효과 극대화

에 나섰다. 중소기업들의 제조혁신을 돕기 위해 스마트공장 지원센터를 만든 대기업 삼성전자와 중소기업 화진산업 이야기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생산량이 늘어난 화진산업은 마스크 100만장을 공영쇼핑을 통해 일반에게 '노마진'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대·중기간 상생을 통한 선순환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상암동 공영쇼핑에서 삼성전자, 화진산업, 도레이첨단소재, 씨엔투스성진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을 통한 마스크 공급 협약식'을 개최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마스크필터를 긴급 생산, 공급해 화진산업이 마스크 완제품을 만드는데 힘을 보탰다.

이외에 함께 자리한 씨엔투스성진은 국내 마스크 제조사 중 가장 먼저 노마진 판매방식에 참여, 수급 안정에 나선 '착한 기업'이다.

이날 자리에는 중기부 박영선 장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김종호 스마트공장지

원센터장(사장), 이현철 화진산업 대표, 전해상 도레이첨단소재 대표, 하춘욱 씨엔투스성진 대표,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힘을 모은 착한 기업과 '자상한 기업'들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이러한 자발적 상생협력 노력이 모여 코로나19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600억 원을 출연하고, 중기부와 함께 총 1100억 원을 조성해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스마트공장 지원센터를 구축했다. 여기엔 200명의 제조 전문가들이 동원돼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게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018~2019년의 경우 지원한 기업수만 1077곳 등 지금까지 총 2500여 곳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도왔다.

특히 화진산업에는 마스크 생산량 향상 지원을 위해 지난 2017년과 2019년에 10여 명의 전문가를 집중 투입, 하루 평균 4만개 정도이던 생산량을 10만개로 늘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서 생산성을 높인 화진산업은 마스크 100만개를 조만간 공영쇼핑을 통해 일반에게 저렴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화진산업은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상품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7년 당시 벤처부처 대통령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게다가 화진산업이 필터 전문 제조사인 도레이첨단소재로부터 필터를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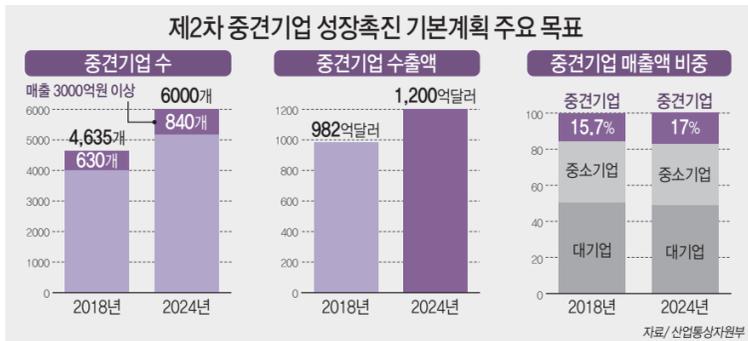
받게 된 것도 삼성전자가 상당한 도움을 줬다는 후문이다.

최근 3개월간 매출과 일자리가 3배 정도 늘어난 화진산업은 올해 매출 100억원 돌파를 예고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공영쇼핑 최창희 대표는 "TV홈쇼핑 유일 공공기관으로서 코로나19라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맞서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해 ▲노마진 판매 ▲입고 즉시 매일 방송 진행 ▲전 연령층 구매를 위한 상담원 배치 ▲일시 쏠림방지를 위해 방송시간 미고지 ▲공공기관 책무를 위해 직원 및 관련자 구매 원천 불가의 '판매 5원칙'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다른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인 씨엔투스성진은 국내 최초로 고성능 헤파필터 원천기술을 개발한 기업으로 공영쇼핑을 통해 마스크 노마진 판매에 나선 수범했다. 추가 생산하는 마스크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서울시와 대규모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납품,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정부, 5년내 중견기업 6000곳으로 늘린다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수출액 12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정부가 2024년까지 중견기업을 6000개까지 늘리고, 이들의 수출액을 1200억 달러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 50개와 지역 대표 중견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중견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등 맞춤형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를 개선할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견기업법은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중견기업법에 따라 5년에 한 차례씩 내놓는 것으로 2015년 6월 당시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전신)에서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현 정부들어 중견기업 관련 주무부처가 바뀌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든 첫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3대 추진전략으로 ▲산업·지역·신시장 진출 선도 역할 강화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법·제도 등 성장 인프라 확충을 설정했다.

우선 중견기업이 산업경쟁력과 지역경제의 혁신·도약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전자전자·기계금속·기초화학을 중심으로 50개 이상의 유망 중견기업을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

지역 대표 중견기업은 100곳을 선정하고, 협력 중소기업 등과 상생협력·R&D·수출·특허 관련 지원을 연계해서 제공한다. 이 정책은 지역 대표 중견기업 육성추진단을 구성해 추진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시장으로의 중견기업의 진출도 적극적으로 돕는다. 이를 위해 올해 20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대상 무역보험과 220억 규모의 수출 컨설팅 등을 편성했다.

혁신 잠재력이 큰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전용 R&D로 성장을 촉진한다.

우수 연구자원과 경험을 보유한 국내 정부 출연 연구원이나 전문 연구원과 차세대 핵심기술 공동기획,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업지능화 잠재력을 지닌 중견기업을 지원해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공 사례를 만든다.

AI·빅데이터 인력 확보를 위해 10개 대학에서는 중견기업 취업형 석·박사 과정을 운영한다. /김승호 기자

## “청년희망나눔에 취업생 벗어나 정규직”

SK하이닉스, 프로그램 참가자 교육·훈련후 협력사 취업 연계

태양이 뜨거운 지난해 7월 초, 동국대 서울캠퍼스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청년들이 한 두명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대학은 여름방학에 들어가 캠퍼스는 비교적 한산한 데 모여든 남녀 청년들은 어느새 237명까지 늘었다.

이들은 SK하이닉스가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청년희망나눔' 2기 참가자들이다. 앞서 몇세 동안 진행한 면접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 1차 관문을 통과한 이들이지만 7주간의 직무교육과 SK하이닉스 협력사 인턴십, 그리고 정규직까지 아직 갈길이 많이 남아 있다.

"7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비즈니스 교육이었다. 수업때는 이 교육이 그렇게 유용할지 몰랐다. 사내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작성법, 문서 작성할 때 필요한 엑셀 다루는 법, PPT 작성법 등을 나중에 회사에 취업하고 보니 많은 도움이 됐다. 수업명을 왜 '비즈니스 교육'이라고 붙였는지 알겠더라."

IT솔루션 서비스 회사 퓨처젠 ITS



SK하이닉스 '청년희망나눔'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교육에 앞서 설명을 듣고 있다. /SK하이닉스

사업부에서 일하는 박인환 사원의 말이다. 박씨는 지난해 진행된 SK하이닉스의 청년희망나눔 프로그램을 마치고 인턴 생활을 거쳐 정규직으로 지금의 회사에 다니고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기협력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청년희망나눔' 사업은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자체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 구직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협력기업 등으로 취업을 연계하는 청년 취업 지원 프로젝트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엔 교육 및 인턴 수당도 지급하기 때문에 호구지책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퓨처젠 ICS 사업부에서 기술 영업을 맡고 있는 이하늘씨도 지난해 SK하이닉스의 관련 프로그램을 거쳐 취업에 성공한 케이스다.

지난해 SK하이닉스의 관련 프로그램을 거쳐 협력사인 대덕전자에 취직한 장창규 씨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불안감일 것"이라며 "청년희망나눔 프로그램이 그 불안감을 극복시켰고 자신감을 되찾게 했다. 특히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취업생들이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기회가 되면 꼭 도전해 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승호 기자

## 성능 향상 '엘라스틱 스택 버전 7.6' 출시

엘라스틱, 지도 머신러닝 기능 탑재

엘라스틱은 검색·분석 엔진인 '엘라스틱 서치'의 속도를 대폭 향상시키고, 보안 기능 및 지도 머신러닝 기능을 강화한 '엘라스틱 스택 버전 7.6'을 정

식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엘라스틱 스택 버전 7.6은 엘라스틱 서치의 검색 성능을 대폭 향상하고 지도 머신러닝 기능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엘라스틱 스택 버전 7.6은 보안

기능을 강화했다.

이번 버전에는 새로운 통합보안관리(SIEM) 탐색엔진을 도입해 스택 탐색을 자동화하고, 평균 진단 시간을 최소화해준다. 엘라스틱 서치를 핵심으로 하는 '엘라스틱 SIEM'은 이미 보안 조사 시간을 수 시간에서 수 분으로 줄여준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중국 대통령 보는 것 같아” 文 탄핵청원 60만명 육박

코로나19 대응 방식 허술 ‘비판’  
마스크값 폭등에 여론 부글부글  
“中 모든 지역서 입국금지 했어야”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50만 명을 넘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일부 국민들이 ‘탄핵 청원’으로 화답한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4일 처음 등장한 이후 26일 오후 2시 기준 56만8493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는 넘긴 만큼 해당 청원이 마감되는 다음 달 5일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자는 문 대통령의 코로나 19 대응 방식을 두고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에도 문 대통령은 300만 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고,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또 정부가 코로나 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찾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이미 우한 지역 봉쇄 직전에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 명이 넘는데,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만 제한하면 이는 모든 중국인에게 한국을 드나들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가 아닐까. 정말 자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6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긴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 했어야 한다”며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 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 탄핵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4월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을 방지하고 묵인한다는 이유로 ‘탄핵 청원’이 올라온 적이 있다.

당시 청와대는 답변에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이기에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쉽없이 달려왔지만,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 결과에 비춰볼 때 이번 청원도 지난번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청원이 마감된 뒤 논의해 답변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文-여야 대표 내일 ‘코로나 회동’

111일 만에 회담... 국회서 진행  
사태 수습 위한 협력방안 논의  
국회 추경처리 협조 당부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 대응 논의를 위해 여야 대표와 머리를 맞댄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문 대통령이 오는 28일 국회를 방문해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여야 대표 회동을 갖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은 지난해 11월 10일 회동 이후 111일 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모친상 조문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와 만난 적이 있다.

회동은 문 대통령이 이혜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김정화·유성엽·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여야 4당 대표를 만나러 국회로 가는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보통 청와대에서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코로나 19 확산 기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구 지역 특별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의 협조를 부탁하는 만큼 대통령이 국회로 방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올해 예산안 설명 차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방문한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19 사태 수습 차원에서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처리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에 코로나 19 사태 수습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국

회 협조를 얻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25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추경을 통해(코로나 19 사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한 중국인 입국 금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하거나 방문한 외국인만 입국 금지 조치를 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새학기부터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첫 발’

192학점 도달시 조기졸업 가능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 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가 올해 1학기 마이스터고에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2020 서울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3월1일 마이스터고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문적인 직업교육 학교로 서울에는 서울도시과학기술고, 서울로봇고, 미래여자정보과학고, 수도전기공고 4곳이 운영 중이다. 이외 19개 직업계고 학

점제 연구·선도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일부 적용된다.

마이스터고 1학점 수업량은 현행 17회에서 16회로, 총 이수학점은 현행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낮아져, 학교 밖 학습경험 등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목간 융합이수 기회가 확대되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마이스터고 신입생을 시작으로 2022년 특성화고를 포함해 직업계고에 추가 도입되고, 2025년엔 일반고를 포함한 모든 고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 한국외대 ‘코로나19 대응’ 센터 설치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인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총력 대응한다.

26일 한국외대에 따르면, 한국외대는 지난 24일부터 인천공항 T1, T2, 김포공항에 한국외대 전용 귀고지원 접수대(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고, 하루 3~4회 외국인 학생들을 서울과 글로벌 양 캠퍼스에 송수하고 있다.

중국 방문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별도 분리 공간에서 2주간 격리토록하고, 해당 공간에 대응전담팀을 상주시키고, 도시락과 간식, 개인 샤워실 등을 제공한다. 또 기숙사 1층에는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학생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숙사 운영팀은 환자 발생 등 긴급 사태에 대비 중이다. /한용수 기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0년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사업에서 창업도약센터(후속지원 전담) 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천대학교

## 인천대,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사업 선정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0년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사업에서 창업도약센터(후속지원 전담)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역 창업지원센터 4개소, 창업도약센터(후속지원 전담) 2개소, 스포츠 사회적기업 전담 1개소로 총 7개 기관을 선정했다. 더불어, 창업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업화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스포츠산업 액셀러레이터 운영 기관에도 선정했다.

인천대학교는 스포츠산업 창업도약

센터로 선정돼 5억2000만원씩 3년간 최대 15억원을 지원 받게 된다. 이번 선정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의 도움도 컸다.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유치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 준비 과정에 참여했으며, 지자체 매칭자금도 투입됐다. 3월 초부터 스포츠 관련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7년 미만의 창업기업 12팀을 선발하기 위한 사업 홍보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발된 창업보육팀은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간 협약을 맺고 사업화 지원금은 최대 4500만원과 인천대학교의 보육프로그램 지원을 받게 된다.

/한용수 기자

## 삼육대 대학일자리본부 운영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삼육대 대학일자리본부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2019년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진로, 취·창업 지원 단위의 공간과 기능을 일원화해 대학생 및 지역 청년들에게 특화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삼육대는 2017년 10월 이 사업 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2022년까지 6년 동안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로부터 10억 6000만원을 지원받으며, 전문상담인력 확충, 진로 및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지난해 10월 1일 열린 삼육대학교 직무박람회 ‘잡 페스티벌’ /삼육대학교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삼육대는 대학일자리본부를 중심으로 진로 및 취·창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외 취업 전략, 직업교육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 취업을 제고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용수 기자

## 폴리텍대 36개 캠퍼스 내달 16일로 개강 연기

전국에 여러 캠퍼스를 둔 한국폴리텍 대학이 올해 1학기 개강을 2주 연기한다.

26일 한국폴리텍대에 따르면, 전국 36개 캠퍼스의 개강일은 당초 3월2일에서 16일로 2주간 연기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는 대구·경북지역 캠퍼스는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강 연기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폴리텍대 김명자 학사부장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개강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며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측은 하계·동계방학을 조정해 수업 시간을 우선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용수 기자

G  
GROVANA  
Swiss Made Since 1924



##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http://www.grovana.co.kr)



BELLEVILLE  
1766.1535



**NH농협리츠운용, 화훼농가 돕기 꽃 나눔행사**  
NH농협리츠운용은 26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NH프라임리츠 제1기 정기주주총회를 갖고 꽃 나눔 행사를 가졌다. NH농협리츠운용은 화훼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NH프라임리츠의 첫 정기주주총회를 맞아 주주들에게 꽃을 나눠주며 꽃 소비 촉진을 장려했다. 서철수 대표(왼쪽)가 꽃 소비 촉진 장려를 위해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에게 꽃을 나눠주고 있다. /NH농협금융

## KT '감염병 확산방지 플랫폼' GSMA 인정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서 수상

KT는 지난 25일(현지시간) 2020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에서 감염병 확산방지 플랫폼 GEPP(Global Epidemic Prevention Platform)로 'UN SDGs 모바일 기여'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GSMA)가 주관하는 세계적 권위의 ICT 분야 시상식이다. 기술·단말·콘텐츠 등 모바일 산업 전반에 걸쳐 주요 혁신과 성과를 달성한 기업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UN SDGs 모바일 기여' 부문에서 수상한 KT의 GEPP는 모바일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오비맥주, 대구에 마스크 등 10억 지원

의사·간호사 등 우선 전달

오비맥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 지역에 마스크와 기부금 등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

오비맥주는 자사의 구매 네트워크를 활용해 긴급하게 마스크, 구강청결제, 손세정제 등 개인 위생용품과 의료품을 마련했다. 지원하는 물품과 기부금

은 의사, 간호사, 방역요원 등에 우선 전달될 예정이다.

오비맥주는 앞서 지난 3일 사단법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도 생수를 지원했다.

오비맥주는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국 주류도매업체를 돕기 위해 주류구매대금 상환 기일 연장 등 대규모 지원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김민지 기자 kmj@

## CJ문화재단, 2020 대중문화 창작자 공모

CJ문화재단은 2020년 '툰업' '스테이지업' '스토리업'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툰업'은 다양한 장르 인디 뮤지션의 음악 활동 및 시장 진출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펠로망스, 새소년, 아도이, 카더가든 등 50팀 139명의 뮤지션을 발굴해 46개 음반을 제작 지원했다.

'스테이지업'은 뮤지컬 부문 신인 창작자들에게 작품개발비 및 전문가 멘

토링을 제공한다. 2020년에는 작품개발비를 작년 대비 두 배로 늘리고, 멘토로 참여하는 연출과 음악감독이 리딩 공연까지 한 팀으로 작업한다.

영화 부문 지원 사업 '스토리업'은 2010년부터 영화 스토리텔러들의 장편 영화 시나리오 집필을 돕다가 2018년부터는 청년 감독들의 단편영화 제작 및 국내·외 주요 단편영화제출품을 지원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 교촌치킨, 대구·경북지역에 2억 지원

방역·긴급구호물품 등에 사용

교촌에프앤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지원금 2억 원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 지사에 전달돼 방역물품, 긴급구호물품 등 지역사회 복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교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대구 경북 지역 시민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기



교촌 본사

부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촌치킨은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가맹점에 방역과 손세정제 등을 지원했다. /김민지 기자

# 포스코1%나눔재단 '더 나은 세상 구현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장애 예술인 대중화' 등 2개 사업 추진

'나는 예술인이다' 최우수상 '유공자 보조기구 지원' 등 총 11건 우수 아이디어 선정

포스코1%나눔재단은 '더 나은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총 11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포스코는 우수 아이디어 중 '장애 예술인 대중화 프로젝트'와 '국가유공자 첨단 보조기구 지원 프로그램'을 포스코1%나눔재단의 올해 대표사업으로 추진된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재단설립 이후 처음으로 외부 개방형 협업을 통해 추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단체나 개인 모두 응모 가능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미래세대, 다문화, 장애인, 문화예술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총 27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과 우수상 4건, 장려상 6건 등 우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장애 예술인 대중화 프로젝트 '나는 예술인이다'는 장애 예술인의 82%가 발표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들에게 보다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제안한 아이디어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이 프로젝트 시행을 통해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에



지난해 포항 인애지역아동센터에서 포스코 '1%나눔 아트스쿨' 공예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이 직접 만든 단청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문성이 있는 장애 예술인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스튜디오 대여와 촬영, 편집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명 유튜브와의 콜라보를 지원하고, 포스코 유튜브 채널인 포스코TV, 포스코 뉴스룸, 포스코 SNS 등 포스코 보유 및 외부 채널을 통해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 홍보에 나선다. 향후에는 이들이 창작 활동 기회를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할 계획이다.

또 다른 우수 아이디어인 '국가유공자 첨단 보조기구 지원 프로그램'은 국가유공자중 대상을 선발해 장애 극복을 위한 첨단 보조 기구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포스코는 이 아이디어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호국보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결혼이민자의 요식업, 소규모 식품 제

조를 지원하는 공유주방, 도서벽지 청소년들의 진로설계를 위한 체험 캠프 등의 아이디어는 장기 사업 아이템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포스코1%나눔재단 이봉주 이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며 "제안자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한 점과 사업화 가능한 수준의 디테일을 중심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1%나눔재단은 문화사업자문단을 통해 소아암 환자 문화예술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2020년에는 미래세대, 다문화,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에서 사회적 트렌드와 니즈를 반영한 의미있는 사업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조폐공사, '코로나19' 위기극복 성금 5000만원

대구·경북지역 구호 등에 사용

한국조폐공사는 26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과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자 구호를 위한 성금 50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구호,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지

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기부금은 조폐공사 임직원 등이 모았다.

조폐공사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혈액수급난 극복을 위해 대전 본사와 ID본부, 부여 제지본부 등에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랑의 헌혈'을 시행한 바 있다.

조용만 사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오른쪽)이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

### 인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원장 이태걸 △경영기획부장 권혁중 △행정부장 김진열 △스나노 바이오첨성센터장 이상원

◆가천대학교 △기획처장 손상준  
◆미디어펜 △산업부장 김영민 △산업부 유통팀장 김영진 △산업부 기자 김건희

◆중소기업중앙회 △부서장 △조합정책실장 황재욱 △소상공인정책부장 고종섭 △외국인력지원부장 손성원 △협업사업부장 김영길 △금융투자부장 이용석 △실물투자부장 노상윤

◆통계청 △과장급 △통계데이터허브국 빅데이터통계과장 원정연 △통계서비스정책관 지능정보화팀장 박영욱 △충청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정선경

◆병무청 △서기관 △감사담당관실 심선용

△입영동원국 광대원 △입영동원국 허철희 △사회복무국 정재숙

### 부음

▲이분하씨 별세, 정창영(아라넷네트웍스 대표·전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정유미(서울프라임병원 영상의학과의사)씨 모친상, 박현찬(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씨 장모상 = 26일 오전 8시, 고대안암병원 장례식장 102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 070-7816-0242

▲박영옥씨 별세, 김종희(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씨 부인상, 김혜련(전 서울시향 단원)·승련(채널A 총선보도기획TF 팀장)씨 모친상, 이승섭(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씨 장모상, 윤주현(한국디자인진흥원장)씨 시모상 = 26일 오전 11시55분,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4

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 02-2258-5940

▲김순옥씨 별세, 오용규(부산 유니버설투어(모두투어 대리점) 대표)·오태경(부산은행 근무)씨 모친상, 오중수(부산 서구청 공무원)·오중훈(한국증권금융 근무)·오윤진(수원시 공무원)·오현주(뉴스1 기자)씨 조모상 = 25일 오후 6시, 부산시민장례식장 304호실, 발인 27일 오전 8시, 051-636-4444

▲오동석씨 별세, 오찬호(우석대 식품과학대학장)씨 부친상 = 26일 전주 호시랑장례문화원 특1호실, 발인 28일 오전 8시, 063-250-4444

**배포도우미 모집**  
강남, 서초지역 근무 010-5241-6694

# 반경 5km 1시간 내 배달... 롯데마트의 '배송혁신'

## 중계·광고점에 풀필먼트 스토어

핵심상권 공략... 배송준비 30분  
온라인 고객 예약·바로 등 서비스  
오프라인 방문고객 QR코드 쇼핑

롯데마트는 점포로부터 5km 반경 지역에 주문 후 최단 1시간 안에 상품 배달을 마치는 '풀필먼트(고객 주문 처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롯데마트는 오는 3월 중계·광고점에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디지털 풀필먼트(Fulfillment) 스토어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점포 기반 온라인 주문 배송은 15km의 광역 상권을 기준으로, 원하는 시간대를 설정해 주문한 물건을 받아보는 '예약배송' 시스템이었지만 풀필먼트 스토어에서의 주문 배송에서는 점포 5km반경의 핵심 상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바로배송'이 핵심 요소다.

롯데마트 바로배송은 배송준비까지

### <롯데마트의 예약·바로배송>

구분	예약배송	바로배송
고객가치	고객이 시간 지정	접수 순 즉시 배달
운영기준	7회차 배송	주문 1시간~1시간30분 배송
배송권역	반경15km(광역상권)	반경5km(핵심상권)
무료배송	4만원 이상	2만원 이상
주문시간	24시간(당일마감 16시)	10:00~21:30
배송시간	~20:00	~23:00



풀필먼트 스토어 시스템이 적용된 롯데마트 매장. /롯데마트

총 30분 내에 이뤄진다. 따라서 고객주문이 시작된 시점부터 고객에게 주문 상품이 배달되는 시점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된다.

고객이 물건을 주문하고 예약시간을

설정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주문 상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시간과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는 능동적 쇼핑 개념을 접목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주문 고객은 시간을 예약해 받을 수도 있으며, 바로 배송, 매장 픽업, 드라이브 픽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 방문 고객은 QR코드 쇼핑을 통해 장바구니 없는 쇼핑도 가능하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풀필먼트 스토어는 온라인 주문에 효과적으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창고의 개념인 동시에, 롯데마트가 '고객의 냉장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디지털 경험이 가능한 미래형 매장을 시험해보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M쿠폰 회원 전용 '스마트카드'는 계산대를 이용하지 않아도 자체적인 상품 스캔과 간편 결제가 가능하다. 각종 상품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가능한 '차세대 전자가격표', 사용자의 편리함을 위해 대형 화면으로 제작한 '키오스크 무인 계산대'도 선보인다.

이 외에도 매장 픽업 주문에 대해 상품 운반 기능을 수행하는 '자율주행 상품운반로봇'도 도입하는 등 고객에게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바로배송'이 가능한 풀필먼트 구축 접점은 내달 말 중계점과 광고점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롯데마트 측은 중계점의 경우 5배, 광고점은 8배까지 온라인 주문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풀필먼트 스토어를 오픈 매장의 대표 사례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오프라인 위주 고객의 옴니(Omni) 전환이 이뤄질 경우 월 54억, 년 648억 원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세호 박세호 디지털전략부장은 "온·오프라인 통합 풀필먼트 스토어는 고객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설계한 매장"이라며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시간에 맞춰 제공하는 고객 중심 매장 구현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kmj@metroseoul.co.kr

# 11번가 "생필품 502종 집에서 장보세요"

내달 8일까지 기획전... 최대 40% ↓  
코로나19에 거래증가 상품 중점준비

'커머스포털' 11번가가 최근 고객들이 많이 찾는 생필품들을 모은 '집에서 장보기' 기획전을 오는 3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생수, 즉석밥, 라면, 가정 간편식부터 손 세정제, 세제, 화장지, 물티슈, 보디용품 등 502종의 상품을 최대 40% 할인한다.

행사 기간 매일 '핫딜' 상품을 무료 배송한다. 26일에는 '디펜스 프리미엄 손 소독제' (60ml 2개)를 1만 개 한정으로 50% 할인한 5900원에, '동원 라이트 참치통조림' (85g 20개)을 26% 저렴한 1만5980원, '송도순 도시락김' (40봉)을 31% 싼 8900원, '조선호텔 포기김치' (2.5kg)를 24% 할인한 1만7450원, '고려은단 골드플러스' (150정)을 30% 할



인해 판매한다.

이어 27일에는 '신동진쌀' (20kg)을 3000원 할인한 4만8900원, 28일에는 '아워홈 지리산수' (2리터 24병)를 27% 저렴한 2만4900원, '레인보우샴 소독제'를 반값에, 29일에는 '베베숲물티슈'를 30% 할인해 내놓는다.

특히 이번 기획전에서는 '코로나19' 이슈가 확대된 최근 거리가 급격하게 증가한 상품군을 중점적으로 준

비했다. 11번가에서는 최근 일주일간(2월 19~25일) 전년 동기 대비 쌀 매출이 4.5배(355%) 급증했으며 즉석밥 242%, 생수 185%, 라면 42%, 냉장/냉동식품 108%, 통조림 183%, 손 소독제 9771%, 화장지 67%, 세탁세제 56% 등 생필품 카테고리 상품들의 거래가 늘었다. 쌀과 생수, 라면, 즉석밥 등 대표적인 생필품의 거래가 전주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1번가 임현동 마트담당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고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제품군을 선별, 언제든지 가정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필요한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면서 "상품들의 거래 추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물량을 확보해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 GS25, 편의점 도시락에 애국지사 30명 어록 부착

삼일절 맞아 국가보훈처와 맞손

생존 애국지사 30명과 대한민국 국민이 편의점 도시락을 통해 양방향 소통을 하게 된다.

GS25는 국가보훈처와 손잡고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생존 애국지사 30명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심'을 주제로 어록 스티커를 제작해, 판매하는 도시락 전 상품에 부착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제101주년 삼일절을 맞아 조국 광복을 위해 힘쓴 생존 애국 지사가 후세대에 전하는 어록을 알리고 독립유공자의 뜻을 기억하기 위해 계획된 것.

GS25의 이번 캠페인은 일방적 정보 알리기에서 한층 진화돼 양방향 소통을



생존 애국지사 어록 스티커를 부착한 GS25의 도시락. /GS25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도시락에 부착된 스티커에는 쿼일(QR) 코드가 인쇄됐는데 이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애국지사에게 전하는 감사의 공간'이라는 참여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이 온라인 공간에서 애국지사들의 공훈 활동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를 자유롭게 남길 수 있다. GS25는 캠페인 종료 후 참여한 국민의 메시지를 액자로 만들어 애국지사분들께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생존 애국 지사는 총 34명이고 이 중 30명이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특히 독립군 유격 대장으로 활동하다 1945년 5월 사형선고를 받은 후, 광복으로 출옥한 애국지사 이대산 선생은 이번 캠페인 기획이 한창이던 지난 16일 별세해 큰 아쉬움을 남겼다.

/조효정 기자

# 한국야쿠르트 야채+단백질 '하루야채 프로틴'

한국야쿠르트는 내달 2일 하루치 야채에 단백질을 더한 '하루야채 프로틴밀'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야쿠르트는 이번 제품 라인업 확장을 통해 '1등 야채주스'로서 시장 입지를 공고히 하는 한편, 성장하는 단백질 식품 시장도 함께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하루야채 프로틴밀은 당근과 호박고구마를 포함한 19가지 야채와 콩, 보리 등 23가지 곡물을 담았다.

여기에 야채 350g과 식물성 단백질도 함유했다. 기존 하루야채에 곡물이 더해져 보다 더 고소한 맛을 내며, 포만감도 좋다.

/김민지 기자

# 오뚜기 100% 자연치즈 '오즈키친 치즈스틱' 2종

오뚜기는 자연치즈의 풍부한 맛과 정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오즈키친 치즈스틱(사진)' 2종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즈키친 치즈스틱 2종은 100% 자연치즈만을 사용해 고소한 풍미가 특징이다. 유통처리를 통해 오일 스프레이 없이도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다.

오즈키친 치즈스틱 코코넛은 치즈스틱의 튀김에 코코넛 슬라이스를 묻혀 치즈와 코코넛 각각의 고소함과 코코넛 슬라이스의 달콤함을 느낄 수 있다.

후라이팬 조리 외에도 에어프라이어에 기름 없이 5~6분만 조리하면 간편하



고 맛있게 바삭한 치즈스틱을 맛볼 수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자연 치즈를 사용해 더욱 부드럽고 고소한 '오즈키친 치즈스틱' 2종을 출시했다"며 "에어프라이어 조리만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 사조대림 해표 김이봉 등 신제품 3종 출시

사조대림이 1986년부터 이어온 해표 김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맛과 컨셉의 김 제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해표는 '해표 김이봉', 해표 시즈닝 김, '한끼 톡톡 김자반' 등 신제품 3종(사진)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표 김이봉'은 100% 국내산 원초에 통째로 100%의 해표 들기름을 발라 두 번 구워 더 고소하고 바삭한 맛과 식감이 일품인 재래김이다. '김이봉'이라는 제품명은 5g의 소규격 도시락 재래김 두 봉지를 한 패키지에 담았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김민지 기자

# 영양크림 한 통을 통째로 바른 듯 더페이스샵 '마스크림 텐션 시트'

## Advertorial Corner

시트형 마스크 리뉴얼 출시  
주름개선·안티에이징 케어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케어를 위해 기존 시트형 마스크 '마스크림'을 리뉴얼한 '마스크림 텐션 시트'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더페이스샵이 새롭게 선보인 '마스크림 텐션 시트'는 기존 마스크림과 비교해 하관 부분의 페이스 라인을 쫄쫄하게 당겨서 올려주는 극세사 텐션 시트가 적용되었고, 전 라인에 주름개선 기능을 추가해 한층 더 강력한 안티에이징 케어가 가능하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텐션 시트는 기존 시트보다 턱 아래인 하관 부분을 넓게 제작해 늘어진 턱밑 부분까지 최대한 감싸 올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도톰한 시트에 맞춰 유효 성분을 담고 있는 크림 용량도 기존 30mL에서 40mL로 증량했기 때문에 더욱 넉넉한 용량으로 듬뿍 머금어진 크림을 경험할 수 있다.



더페이스샵에서 마스크림을 리뉴얼한 마스크림 텐션 시트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리고 4종으로 구성된 미백, 수분, 탄력, 보습 전 라인의 효능 성분에 주름개선 기능이 추가되어 안티에이징은 물론 다양한 피부 고민까지 케어할 수 있다.

더페이스샵 담당자는 "마스크림은 이름 그대로 크림 한 통을 모두 바른 듯한 풍부한 영양감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다"며, "텐션 시트를 적용해 피부톤과 결뿐만 아니라 탄력 관리까지 가능해지면서 복합적인 안티에이징 케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 유통가 소식

# 올리브영, 세일 연기... "고객·직원 안전 우선"

3월 예정 봄 정기 세일 추후 결정

CJ올리브영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진 데 따라 봄 정기 세일을 잠정 연기한다고 26일 밝혔다. CJ올리브영은 애초 봄 정기 세일을 3월 초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고객과 직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전사 방침에 따라 연기를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 23일 코로나 19에 대한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한 데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기도 하다.

CJ올리브영은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지속해서 면밀히 살펴 세일 시기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코로나19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추가 확산과 감염 예방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올리브영이 추구하는 '건강한 아름다움' 가치에 따라 안전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kmj@

# "녹차로 장 건강 챙기세요" 퍼실, 액체세제 점유율 1위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바이탈뷰티' 기능식품 '녹차에서 온 유산균' 출시

아모레퍼시픽 이너뷰티 솔루션 브랜드 '바이탈뷰티'가 유기능 녹차 유래 특허균주가 편



'녹차에서 온 유산균' /바이탈뷰티

안한 장 건강 리듬을 찾아주는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 '녹차에서 온 유산균'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녹차유래유산균 GTB1™을 포함, 엄선한 6종의 복합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담아낸 '녹차에서 온 유산균'은 항균력이 강한 차잎에서도 서식하는 녹차유래유산균을 함유해, 자극적인 식생활에 길든 한국인의 장에 무리 없이 정착할 수 있다.

/조효정 기자

액체 세제 브랜드 퍼실(Persil)이 지난해 2019년 액체 세제 시장에서 2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칸타월드패널이 2019년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인터넷, TV 홈쇼핑 등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조사한 결과, 퍼실은 2위 브랜드와 약 10%의 큰 점유율 차이를 보이며 1위를 유지했다. 이로써 퍼실은 2014년 이래 액체 세제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6년째 차지하며 국내 세탁세제 시장의 독보적인리더브랜드임을 과시했다.

2019년도 대한민국의 액체 세제 시장의 규모는 82.6%로 10가구 중 8가구가 액체 세제를 사용하고 있다.



/조효정 기자

퍼실 액체 세제

# '렘시마SC' 국내 판매된다

셀트리온 식약처서 판매허가  
IBD 적응증 추가해 시장출시  
2022년 美 FDA 허가 목표

셀트리온은 자체 개발한 항체 바이오의약품 '렘시마SC'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판매허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TNF- $\alpha$  억제제(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정맥주사(I.V) 제형인 렘시마를 피하주사(SC) 제형으로써 지난해 11월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판매 승인을 획득하고, 이달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시장에 첫 선을 보였다.

이번에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적



셀트리온 자체개발 의약품 '렘시마SC'

응증은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으로 셀트리온은 염증성 장질환(IBD) 적응증 추가를 위해 변경허가절차를 거쳐 연내 적응증 추가를 받을 계획이다. 렘시마SC는 IBD 적응증 추가에 대한 허가 완료 후 국내 시장에 선보이게 된다.

셀트리온은 최근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캐나다에 렘시마SC 허가 신청을 제출한 바 있으며 허가 후에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직판망을 통해 캐나다 전

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인 시장 미국에서는 렘시마SC를 '신약'으로 인정해 1·2상 임상을 면제받고 현재 3상 임상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셀트리온은 2022년 미국 식품의약품(FDA)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렘시마SC 식약처 허가에 따라 셀트리온은 국내에서도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며 "유수의 해외 학회에서 임상 데이터 공개를 통해 약효 및 안전성 등을 검증받은 렘시마SC를 국내 환자들에게 조기에 선보일 수 있도록 IBD 적응증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한미약품 '구구' 日 진출... 산도즈와 맞손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日 대표 제약기업)

6월부터 산도즈 통해 현지 출시  
"日 퍼스트제네릭으로 시장개척"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구구'가 퍼스트제네릭 지위를 확보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BPH)'로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일본 시장 판매는 일본 대표 제약기업 중 하나인 산도즈가 맡는다.

한미약품은 최근 일본 허가 당국으로부터 구구 2.5mg과 5mg 두 가지 용량을 BPH 치료를 위한 퍼스트제네릭으로 시판허가를 취득하고, 오는 6월부터 산도즈를 통해 현지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본 제품명은 '산도즈 타다라필 (2.5·5mg)'이다.

한미약품은 구구 완제품을 생산해



한미약품 발기부전치료제 '구구'

산도즈에 공급하며, 산도즈는 이를 패키징한 뒤 일본 전역에서 영업과 마케팅을 전담한다. 이번 수출은 한미약품이 개발한 경구용 완제의약품이 일본에 진출하는 첫 번째 사례다. 지난 2018년 일본 타다라필 BPH 전체 시장은 연간 6300만정도로, 향후 한미는 일본 BPH 시장의 최대 점유율 확보를 목

표로 산도즈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한국 비뇨기 시장에서 확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구구가 일본에서 '퍼스트제네릭'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파트너사와의 견고한 협력을 통해 일본 BPH 시장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구는 전립선과 방광의 평활근에 있는 PDE5 효소를 억제해 발기를 돕고 BPH를 개선하는 정제 형태의 전문 의약품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5mg과 5mg은 전립선비대증으로, 10mg과 20mg은 발기부전치료제로 적응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국민대 임홍재 총장(왼쪽)과 (주)국민대학교기술자주 회사 국민바이오(주) 성문희 공동대표가 지난 21일 외국인 유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약콩두유 4만개 기증을 약속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 국민바이오, 유학생 위해 콩두유 4만개 기증

국민대학교는 지난 21일 국민대학교 기술자주회사 국민바이오가 외국인 유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6000만원 상당의 국민약콩두유 4만개를 기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기증된 국민약콩두유는 모두 국민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에게 무상 지원된다.

전북연구개발특구에 소재한 국민바이오(주)는 바이오헬스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기초 연구성과를 활용해 올해

100% 우리 콩으로 만든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국민약콩두유와 제주나물콩두유를 출시했다.

이번에 기증된 국민약콩두유는식이 섬유와 올리고당이 풍부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활용되는 약콩 '익산 소청자'를 골라 만든 전두유다. 비만, 당뇨, 고지혈증, 어린이 성장, 신장질환, 산후풍 등에 도움이 되는 영양성분을 고루 갖추고 있다.

/한용수 기자 hys@

## 동아제약-동부교육지원청

# 월드비전 '아침머꼬' 지원

동아제약은 동부교육지원청과 월드비전의 조식지원사업 '아침머꼬'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식지원사업 '아침머꼬'는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과 동부교육지원청이 가정 형편상 아침 식사를 거를 수 밖에 없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해 결식률을 낮추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침 식사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청결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동아제약은 초·중학생들이 아침 식사 후 청결한 구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가그린, 가그린 치약, 조르단 어린이 칫솔 등의 구강 청결 용품을 6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총 10개 학교 100명의 학생에게 1년간 제공한다.

/이세경 기자

# 한진-농협물류, 화훼농가 위해 꽃 나눔 행사

코로나19로 어려운 화훼농가 도와

한진은 농협물류와 함께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화훼 수요 감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꽃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행사에선 한진빌딩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직원들에게 장미꽃 1000송이를 나눠주며 화훼소비 촉진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한진과 농협물류는 2017년 7월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협택배'를 시작해 국내 우수 농산물의 유통·물류비를 절감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진택배와 농협물류 직원들이 한진빌딩 입주사 직원들에게 꽃을 나눠주고 있다.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지수첩

김승호 <산업부>

“비상! 비상! 비상!”

80년대 초등학교를 다니고, 90년대 군생활을 했던 나에겐 매우 익숙한 외침이다. 군대에서야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물정 모르는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무슨 훈련을 할 때마다 ‘비상’을 외쳤는지 가물가물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2020년 현재 우리는 지금 ‘비상사태’를 맞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며 흑시나 했던 숫자가 26일 기준으로 한국에서 1000명을 훌쩍 넘었다.

미국 하버드대 한 교수는 1년 내 코로나19에 감염될 숫자가 전 세계 인구의 40~70%에 달할 것이라던 암울한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물론 코로나19에 걸린다고 해서 모두 치명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긴 했지만 범상치 않음은 분명하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 보다 더 말이다.

경제학자들이나 관련 연구원들은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상당할 것이라 경고도 내놓고 있다.

그럼 이같은 비상 시국에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국가는 가능한 모든 것을 총동원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논의중인 ‘코로나추경’도 대규모로 긴급하게 편성하고 빠르게 집행해야 한다.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을 면밀히 보살펴야 한다.

추경은 1회용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도 반드시 쓰여져야 한다. 마스크 몇 장을 구하기 위해 수 십미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구 시민들의 풍경을 그냥 넘겨선 안 된다.

무엇보다 코로나추경은 관에 박힌 나눠주기식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적재적소에 세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밥값 못하고 있는 정치권은 이 틈을 노려 정쟁을 더욱 격화시켜선 안 된다. 정치적, 지역적 색깔론을 퍼기보단 이성적이고 냉철한 대안과 방향을 ‘민의를 전당’인 국회가 내놔야 한다.

자칫 ‘O 문은 개가 O 문은 개’라고 찢는 꼴이 될 수 있다.

국민들도 강 건너 불구경 할 수 없다. 마스크 착용은 본인과 타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배려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과도할 정도의 손씻기도 중요하다.

마스크를 만들어 싸게 파는 착한 사장님,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를 내린 착한 건물주,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힘쓰는 주변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비상시국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 아닌 가장 따뜻한 것이 ‘사람’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 한 교수는 1년 내 코로나19에 감염될 숫자가 전 세계 인구의 40~70%에 달할 것이라던 암울한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물론 코로나19에 걸린다고 해서 모두 치명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긴 했지만 범상치 않음은 분명하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 보다 더 말이다.

경제학자들이나 관련 연구원들은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상당할 것이라 경고도 내놓고 있다.

그럼 이같은 비상 시국에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국가는 가능한 모든 것을 총동원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논의중인 ‘코로나추경’도 대규모로 긴급하게 편성하고 빠르게 집행해야 한다.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을 면밀히 보살펴야 한다.

추경은 1회용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도 반드시 쓰여져야 한다. 마스크 몇 장을 구하기 위해 수 십미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구 시민들의 풍경을 그냥 넘겨선 안 된다.

무엇보다 코로나추경은 관에 박힌 나눠주기식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적재적소에 세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밥값 못하고 있는 정치권은 이 틈을 노려 정쟁을 더욱 격화시켜선 안 된다. 정치적, 지역적 색깔론을 퍼기보단 이성적이고 냉철한 대안과 방향을 ‘민의를 전당’인 국회가 내놔야 한다.

자칫 ‘O 문은 개가 O 문은 개’라고 찢는 꼴이 될 수 있다.

국민들도 강 건너 불구경 할 수 없다. 마스크 착용은 본인과 타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배려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과도할 정도의 손씻기도 중요하다.

마스크를 만들어 싸게 파는 착한 사장님,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를 내린 착한 건물주,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힘쓰는 주변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비상시국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 아닌 가장 따뜻한 것이 ‘사람’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bada@metroseoul.co.kr

# LH, 능률협회컨설팅 주최 ‘존경받는 건설공기업’ 1위 선정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인정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진행한 ‘2020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산업별 조사에서 공공건설공기업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매년 시행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기업의 혁신능력과 고객가치 등 6대 핵심가치

에 대해 관련 전문가 등이 종합 평가해 산업별 1위 기업을 선정한다.

LH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LH는 주요 정부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사회적 가치 내재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돼 1위 기업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LH 전주 사옥.

/정연우 기자 yw964@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2월 27일 (음 2월 4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데 자업자득이다. **48년생** 먼저 칭찬하고 이해할 것. **60년생** 비가 오니 밖에 나가지 않도록. **72년생** 정도를 지나치면 하지 않느니 못하다. **84년생** 마음만 바쁘고 진즉 행동이 옮겨지지 않는다.
- 37년생**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진다. **49년생** 상대가 못마땅해도 오늘은 너그럽게 넘어가자. **61년생** 조상님들 산소를 보살펴두라. **73년생** 동상 걸린 발을 얼음물에 담그는 격. **85년생** 문서운이 활발하니 거래가 순조롭게 이어진다.
- 38년생** 늦가을의 경치가 더욱 아름다우니 힘써라. **50년생** 해가 지면 잠을 자듯 해가 뜨면 일을 해야. **62년생** 기회를 놓쳐서 때늦은 탄식이 절로 난다. **74년생** 집이 흠집투성이니 내 집이라 기쁘다. **86년생** 말을 예의 바르게.
- 39년생** 타협이 해결책이 아닌 영항하지 마라. **51년생** 지나친 자존감으로 좋은 기회를 놓친다. **63년생** 새로운 계획은 많은 것을 가져온다. **75년생** 하늘도 맑고 푸르니 여행을 떠나도 무방. **87년생** अच्छ 할 일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 40년생** 여행을 금하고 집안 청소를 하자. **52년생**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64년생** 자신의 능력으로 승진하여 보람 있다. **76년생** 부작절한 이상 관계로 망신 수가 있으니 자중. **88년생** 이리저리 따지다 보면 결국 원점.
- 41년생** 가리기보다는 옛 생각을 하여 마음을 열어보는 것도. **53년생** 나무의 가지가 커지면 반드시 부러지니 잠시 물러서 보라. **65년생** 악기를 배워보라. **77년생** 생 비단옷을 입고 밤에 다니는 것과 같다. **89년생** 작게 주고 크게 얻을.

- 42년생** 청순한 남자가 죽었으나 한평생재물은 넉넉. **54년생** 나이를 따지지 않고 학문에 몰두. **66년생** 공이 헛수고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 기다려보라. **78년생** 마무리는 끝을 잘해야. **90년생** 불이나 다 가까운 곳의 물이 필요.
- 43년생**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구나. **55년생** 좋은 옷을 입었으나 밤길을 가니 봐주는 사람이 없다. **67년생** 자신의 천직에 보람을 갖도록 해야. **79년생** 투자나 매매는 번번이다. **91년생** 서북쪽으로 가면 행운이 있다.
- 44년생** 줄서기를 반복하니 결국은 바보스러운 선택이었다. **56년생**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한다. **68년생** 부모 유산을 기대하고 백수건달로 놀지 말아야. **80년생** 소통이 너무 잘되도록 이루기가 어렵다. **92년생** 나라에서 받는 혜택이.
- 45년생**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57년생** 베품에 고집을 부리면 가족도 외면. **69년생** 혼자 하거나 어렵고 남과 하거나, 의견이 충돌되고. **81년생** 일이 너무 잘 풀리니 교만해질까 걱정. **93년생** 계획 없는 이동은 자제를.
- 46년생** 자녀의 학문의 길도 여러 갈래에 전문가와 상담을. **58년생** 수치가 생겨도 화내지 말고 생각하라. **70년생** 더도 말고 오물만 같으면 좋겠다. **82년생** 투자를 서둘러서 후회가 막급. **94년생**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
- 47년생** 자금이 당장은 힘들어도 풀린다. **59년생** 신념을 가지면 귀신도 나를 피해간다. **71년생** 보라색이 행운을 주니 스카프라도 해보길. **83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온다. **95년생** 새로운 직장에서 연력이 오니 발걸음 가볍게 새 출발.



# 김상희의四季

걸으면서 생각

걷기는 유산소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표본임은 물론이다. 비싼 돈을 내고 체육관에 운동을 끊지 않아도 동네 주변의 작은 공원이나 산길에서도 굳이 운동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사색과 건강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운동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외국의 어느 의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걸으면 걸을수록 모든 질병은 완치된다. 걸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나이가 들어 무릎이 쭈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다.”라고 걷기를 그 어떤 방법보다도 우위에 두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심지어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암조차도 걷기로 예방은 물론 치료까지도 할 수 있다며 걷기의 만병통치 효능을 격찬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 걷기가 몸의 병만 고치겠는가.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라는 속담이 있듯 사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색의 친구가 바로 걷기이다.

심지어 ‘경행’(經行)이라 하여 불교의 수행 방법의 하나가 바로 천천히 걷는 방법이었다. 천천히 걸으면서 알아차리는 정신수행의 방법으로서 경행은 ‘위빠사나’ 수행의 한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근대 서양철학의 대표적 주자인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 세계도 어찌 보면 걷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매일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똑같은 길로 산책을 했던 칸트는 걸으면서 자신의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한 철학적 개념과 사고를 곰곰이 사색한 결과 독일 을 대표하는 철학자가 된 것 아니겠는가. 비록 뛰어난 철학자가 아니라더라도 보통 마음이 복잡할 때 걸으면서 생각을 가다듬지 않는가?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생각하는 힘

3	4		6	2	
	2		5		1
			4		
		6			
2		5		6	
	6	4		1	2

문제풀이:

3X3 스토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의 숫자가 2X3 스토쿠는 가로,세로,2X3박스에 1부터6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1		6		2		9	
2	5		9	3	7	8		
	6	9	1	4				
9	4		8				6	3
			2		1			
8	2				3		5	7
				1	9	4	8	
		5	7	2	4		3	9
9		5		6			2	1

정답

2	1	8	7	9	9			
7	9	1	9	8	2			
8	9	2	9	1	7			
9	8	7	2	9	1			
1	7	9	8	2	9			
5	2	9	1	7	8			
1	2	9	8	9	8	6	7	
6	8	9	7	2	9	8	1	
9	8	7	6	1	8	2	9	
2	9	1	8	6	7	9	2	
8	7	6	1	9	2	8	9	
8	9	2	9	1	7	6		
2	2	9	8	7	1	6	9	8
9	1	8	2	8	6	7	9	2
7	6	8	2	9	9	8	1	2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sudoku365.net

BTS Kpop Kings 방탄소년단 케이팝 킹스

방탄 브라운 저 | a9press | 15,000원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9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97호

# 야외 러닝으로 면역력 증가 vs 코로나 감염 무방비

## 운동하는 2030 딜레마

러닝크루 정규모임 중단됐지만 '야외 진행' 일부모임 러닝 진행중  
땀차고 불편해 마스크 안하기도  
피트니스센터 손님 3분의1로 줄어  
손세정제만 비치, 대처 없는곳도  
땀 등 체액 노출엔 경각심 없어



지난 2월 19일 여의도 공원에서 한 러닝크루원들이 정규세션을 통해 야외 러닝을 즐기고 있다. 8명의 그룹원 중 2명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이두성 제공

평소 운동을 즐기는 권 씨(32세, 서울 영등포구)는 고민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운동을 나가는 것이 망설여지기 때문이다. 매주 즐기던 A 러닝크루도 한동안은 정규

러닝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몸이 찌뿌둥한 그는 동네 B피트니스 센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면역력 올리려다 코로나19 감염될라

운동을 즐기는 일부 시민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무감각한 태도를 보인다. 서울지역 일부 러닝 크루의 정규 세션이 중단됐지만, 여전히 러닝 모임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구를 붙인 피트니스센터. /조효정 기자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야외에서 진행된다는 점, 서울에서는 지역감염이 심하지 않다는 점, 면역력을 향상하기 위해 운동한다는 점이 이유다.

문제는 대부분의 러너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설령 마스크를 착용하고 러닝을 시작하더라도, 장시간 러닝할 경우 마스크에 수분이 차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결국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러닝 크루원인 이 씨(27세, 서울 마포구)는 "마스크에 땀이나 침이 금방 차서 너무 불편하다. 또 야외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 걱정이 덜하다"고 말했다.

다른 크루원인 김 씨(35세, 서울 구로구)는 "나 혼자 마스크를 끼면 유난인 거 같아서 마스크를 착용했다가도 괜히 벗게 된다. 손 세정제도 없고 특별한 조치가 없다 보니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한동안은 러닝 세션에 참석하지 말아야겠다"고 털어놨다.

실내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일부 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시행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회원만 입장 받기도 한다. 그러나 손 세정제만은 비치하고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는 센터가 대다수이다.

매일 헬스장에 출석한다는 신 씨

(33세, 서울 동작구)는 "헬스 머신을 사용하다 보면 타인의 땀에 쉽게 노출된다. 체액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는데 여기에 운동하러 오는 대부분이 건강한 청년이다 보니 경각심이 없어 보이긴 한다"고 밝혔다.

## ◆마라톤대회 주최 여부에 혼란 겪기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함에 따라 2~4월에 계획된 마라톤 대회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오는 3월 29일 열릴 예정이던 함천빛꽃마라톤대회, 4월 5일 개최할 예정인 '제18회 영주시소백산마라톤대회' 등 약 50여 개의 마라톤 대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3월부터 진행하려던 동아오츠카포카리스웨트 러닝크루 활동도 오는 8월로 일정을 연기했다.

3월 22일 개최 예정인 서울 국제마라톤은 2월 24일까지 취소 환불 신청을 받고 이후에 일정에 따라 대회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러너들에 혼란을 주고 있다.

3월 29일에 열리는 전남 구례 빛꽃레이스는 러너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희소한 코로나19 청정지역 마라톤 대회"라며 주목받고 있다.

대회 연기 및 취소로 환불 비용 관련한 불만에 일부 주최 측과 참가자들이 골머리를 썩이기도 했다. 대회가 한달 이상 남으면 대부분 대회 주최 측은 100% 비용을 환불해 주지만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참가비를 50%만 환불하거나 전혀 환불해주지 않는 예도 있기 때문이다.

2월 9일 예정이었던 2020 동계마라톤대회(주최 한국마라톤협회)에 참가하려던 문 씨(28, 서울 용산구)는 "대회 취소 마감일이 1월 28일까지였는데, 해당 날짜가 지난 2월 5일에 대회를 연기하겠다고 공지가 올라왔다. 주최 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결정해 놓고 참가비의 50%만 환불해 준다고 해서 불만이 많다"고 항의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한국기자협회 일원으로,  
正道를 걷는  
당당한 언론이 되겠습니다

metro 경제

## 비상시 임직원들 원격접속 금융사, 재택근무 '이상無'

금융위, 서비스 중단없게 선제조치  
코로나19에 일반 임직원 규제완화

앞으로 금융회사의 일반 임직원은 코로나19관련 비상상황 발생시 원격접속을 통해 재택근무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회사의 망분리 환경에서도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등으로 금융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통신망을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용 외부망으로 망분리하고,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금융회사 일반 임직원까지 규제를 완화해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대체근무

자-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전산센터를 이원화하고, IT부문과 자본시장본부는 분리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ICT 업무별 핵심인력을 11개 대체사업장에 분산배치하고, 우리은행은 남산타워와 서울연수원 등에 대체사업장을 마련했다. 하나은행도 대체사업장을 확대하는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관련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시에도 금융회사의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Harrington Tower 

# 살아도 좋고, 투자는 더 좋은 여의도 해링턴타워 196



중도금 무이자  
**60%**

전 세대 복층형 오피스텔

## 여의도 해링턴타워 196

출근은 여의도, 퇴근은 해링턴타워로!  
서울 2030플랜에 따라 강남, 광화문과 더불어  
서울 3대 도심축으로 급부상하는 영등포의 중심!  
여의도 20만 배후 주거지에 투자하십시오.

- BIG 1** 영등포개발의 최대수혜지 (국제금융업무지구 / 영등포뉴타운)
- BIG 2** 트리플 역세권의 편리한 교통!
- BIG 3**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등 풍부한 주거환경 인프라
- BIG 4** 루프가든, 공유주방 등 프리미엄급 커뮤니티 시설
- BIG 5** 전 세대 복층형 오피스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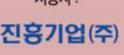


 여의도까지  
지하철 1정거장

 신길역 400m  
신안산선 (예정)

 영등포  
뉴타운 개발

 중도금 무이자  
**60%**

시행수탁자:  KOREA trust  
시행위탁자:  DAE  
시공사:  진흥기업(주)  
분양보증: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은 사업성 또는 허가상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일러스트,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6012-0808**

영산강환경청,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작년 73억 투입, 올해 146억 확대”

소규모 영세사업장 경제 부담 경감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광주·전남·제주 지역 내 대기 오염물질 배출 영세사업장에 국고보조금 73억 원을 들여 오염방지시설 146개를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청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내 노후 방지시설 교체 비용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 수는 광주·전남 각각 39개, 78개다. 제주에는 29개의 방지 시설이 설치됐다.

지원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크게

줄이고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감할 수 있었다고 환경청은 평가했다.

특히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제주 지역 한 업체는 흡착 시설을 여과까지 가능한 신규 시설로 교체해 각종 대기 오염물질량이 크게 줄었다.

해당 업체가 기존에 배출하는 먼지 농도는 7.2mg/m<sup>3</sup>이었으나 교체 이후 1.3mg/m<sup>3</sup>(감량률 82%)로 나타났다. 총탄화수소 농도도 127.5mg/m<sup>3</sup>에서 42.8mg/m<sup>3</sup>로 개선돼 66%가량 줄었다.

환경청은 올해에도 광주·전남·제주 소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46억 원을 지원한다.

/광주=김태수 기자

광주·전남, 3·1운동 기념행사 대부분 취소

공식행사 최소화... 10분내 마무리

코로나19여파로 약식행사만 진행 기념식 아닌 헌화·묵념 등 참배형식 퍼포먼스 등 참여 행사 모두 취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광주·전남지역 3·1운동 기념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공식행사도 최소 인원만 모인 채 10여 분 만에 마칠 예정이다.

26일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1운동 101주년 기념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취소됐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약식행사가 사실상 유일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 광주는 상무시민공원 내 광주독립운동기념탑, 전남은 목포 부흥산 현충탑에서 각각 기념행사를 갖는다.

참석자는 광주의 경우 시장, 시의회 의장, 교육감, 광주보훈청장, 광복회 광주지부장 등 5명이고, 전남은 도지사



지난해 3·1운동 100주년 행사에는 광주 3000여 명, 전남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은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3·1 만세대행진 펼치는 광주시민들 /뉴스

와 도의회 의장, 보훈단체 회원, 도단위 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지난해 100주년 행사에는 광주 3000여 명, 전남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행사는 기념식이 아닌 헌화·분향, 묵념 등 참배 형식으로 10여 분 만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퍼포먼스나 재현 행사, 합창공연 등은 모두 취소됐다. 지난해 전남 여수와 목포, 순천, 곡성, 장성 등지에서 열렸던 다채로운 기념행사도 올해는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됐다. 각급 학교 계기수업이나 교내 이벤트도 초·중·고등학교 개학일이 내달 9일로 전체적으로 늦춰지면서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시민들, 특히 학생들의 보건 안전을 위해 3·1절 관련 행사가 대부분 취소됐다”며 “신학기 등교도 3·1절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어서 교내 행사준비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동네방네

완도군, 약산도에 해양·산림 치유공간 조성

전남 완도 약산도에 해양·산림 치유공간이 조성된다.

완도군은 ‘약산의해·경(海·景), 치유에 담다’를 비전으로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다.

‘약산 치유의 숲’ 조성해 해양치유를

도입, 국내 최초 해양·산림 치유 공간인 약산해양치유체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2021년까지 해수크나이프(해수건기치유), 해양치유길·치유데크, 해수욕장, 해양치유의방 등이 조성된다. /전남=김남중 기자 5555knj@



봄 마중 나온 동박새

전남 화순군 청풍면 신리 마을에서 매화꽃이 활짝 폈다. 매화꽃의 꿀을 찾아 나섰을 동박새가 매화나무 가지에 앉아 있다. /화순군

상주시, 5일장 임시휴장 결정... 코로나 확산방지

상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주 5일장 임시휴장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확진환자 발생 등 지속적인 감염증 확산과 시장 상인 및 고객층의 노령화, 외지 상인의 유입, 다중

이 이용하는 등 시장의 취약성을 고려해 27일 장날부터 상황 해제 시까지 임시휴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수막, 입간판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해 임시휴장 사실을 홍보함으로써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장성군 드림빌사와 테마공원, 행안부 1차 마을기업 지정

“사과 가공품 제조·판매, 체험객 유치 총력”

인건비·운영비 등 5000만원 지원 사과나무 분양·수확체험 등 마련

장성군은 행안부가 지정하는 2020년 1차 신규 마을기업에 ‘드림빌사과테마공원마을’이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마을기업에 지정되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최대 5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드림빌사과테마공원마을은 지난 2012년 농어촌 뉴타운으로 조성된 삼서면 장성 드림빌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펅지구 농촌테마공원의 사과단지, 잔디광장, 다목적센터,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을 위탁



장성군은 행안부가 지정하는 1차 신규 마을기업사업에 선정됐다. /장성군

받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도 전라남도 예비마을기업 공모사업을 통해 18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들은 위탁받은 시설을 적극 활용해 사과장정, 사과즙을 제조·판매하는 2차 산업과 사과나무 분양, 각종 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6차 산업을 추진해 주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드림빌사과테마공원마을 측은 이번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통해 사과떡, 사과파이 등 다양한 가공품을 제조·판매하고, 사과나무 분양, 사과꽃나들이 축제, 수확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체험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전남=김태수 기자

102년간 바다 지킨 ‘목포구등대’ 새 단장

전시실 등 내·외부 시설물 보수공사

1908년부터 불을 밝히기 시작해 102년 동안 항해하는 선박의 길라잡이 역할을 한 목포구등대가 새롭게 단장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의 입구인 ‘목포구등대’의 전시실과 모형등대, 경관조명 등을 교체하고, 내·외부 시설물 보수공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 착공한 이번 사업은 2억원의 예산을 들여 6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전남 해남군 화원면의 목포구등대는 구(舊)등대와 신(新)등대로 구성돼 있다. 구(舊)등대는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



목포구등대와 신등대. /목포해양수산청

379호로 지정돼 있으며, 신(新)등대는 범선모양의 형상으로 2003년에 설치됐다.

해남군에서는 최근 목포구등대를 활용해 오시아노 관광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향후 목포구등대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도 기대되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화순군

쌀 변동직불금 일괄 지급

화순군이 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오는 28일까지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쌀 변동직불금은 전국 수확기 평균 쌀값이 정부가 정한 ‘쌀 목표가격’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의 85%까지 보전해주는 제도다.

2019년산 수확기 평균 쌀값이 80kg 기준 18만9994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은 80kg 기준 5480원(ha당 36만7160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군은 벼 재배 4711농가에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14억16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김태수 기자

Weather forecast for February 27th,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1~10°C), wind speed, and a map of South Korea showing regional weather conditions.



[금융] 인터넷은행 '수장찾기' 금융+정보통신기술 융합할 인재 어디에 05



Life

[라이프] 5km 반경지역 1시간 내 배달 롯데마트 '배출혁신' 나



#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 서울시, 집회 금지구역 확대

### 종로1가·광화문광장 등 집회 금지 위반 시 최대 300만원 벌금형

###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지속적 감시로 감염병 확산 방지"

서울 지역에서 하룻밤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넘게 쏟아지자 서울시가 도심 내 집회금지 확대, 역학조사 강화 등 한층 강력해진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26일 0시부터 서울시내 집회 금지지역을 기존 광화문·청계·서울광장과 그 주변 차도·인도에서 ▲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청계·광화문광장과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와 주변 인도 ▲신문로 및 주변 인도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의 도로와 주변 인도로 넓힌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어기는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집회 금지 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지난 21일에 17개 단체에 집회 금지 공문을 전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26일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달했지만 이 중 7개 단체가 집회를 강행했다"면서 "시는 이들 단체를 고발했고 이번 주말에도 일부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광장 주변에서 예정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11명 늘어난 51명이다. 42명은 현재 격리 중이고 나머지 9명은 완치돼 퇴원했다.

병원 내 감염이 의심되고 있는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에서는 총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은평성모병원 입원 환자인 P(75·남)씨와 K(64·남)씨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환자 모두 자신을 간호하던 아내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종로구가 거주지인 P씨는 지난 11일부터 은평성모병원에 입원해 폐렴 치료를 받던 중 1차 음성, 2차 양성 판정을 받았고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한 뒤 실시한 3차 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2월 1일 이후 병원 방문자 중 발열 등 유증상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하도록 안내했다"며 "역학 조사를 마무리하고 증상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지역 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평구민인 K씨는 지난 8~18일 신우염으로 은평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이후 24일 아내(869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 중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환자 2명이 추가되면서 은평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7명이 됐다. 입원 환자 3명, 환자 가족 2명, 이송요원 1명, 간병인 1명이다.

시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의료진 425명을 검사하고 있다. 현재 은평성모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328명이며 전체 직원은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은평성모병원에 9개반, 4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상황실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클린존병동을 중심으로 환자를 재배치하고 있다"며 "간병인 명단을 확보해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월 1일 이후 병원 방문자 중 발열 등 유증상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를 통해 검사하도록 안내했다"며 "역학 조사를 마무리하고 증상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지역 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동구에서는 명성교회 부목사 등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됐다. 우선 구는 명성교회 부목사와 1차 밀접 접촉자인 348명의 검체를 채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또 1차 밀접 접촉자 외에 확진자와 같이 예배에 참여한 교인 명단을 확보해 전수 조사한다.

구 관계자는 "명성교회에 현장대책반과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소와 경희대병원, 성심병원, 기타 교회 소속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검사를 하루빨리 완료할 계획"이라며 "강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명성교회 관련 전담 콜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추가로 나온 교인 명단에 대해서는 능동감시자에 준하는 관리를 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은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명성교회 시설을 소독하고 폐쇄 조치하는 한편 확진자가 머문 장소와 일대 지역에 대해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SH공사, '로또 분양' 마곡지구 9단지 내달 청약

### 분양주택 962세대 모집 공고 전용면적 84㎡ 분양가 6억원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분양주택 962세대에 대해 26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3월 중 청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조감도. /SH공사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조감도. /SH공사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는 전용면적 59㎡, 84㎡로 구성된 분양주택 962세대와 국민임대·장기전세 567세대 등 총

서류심사 시 소득제한범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시 130%)로 공공주택지구 대비 다소 상향되며 세대 구성원의 자산도 자격요건에서 배제되는 등 적용기준이 다르다.

SH공사는 다음달 9일부터 10일까지 다자녀 및 노부모부양 등 특별분양 청약접수를 진행하고 16~18일에는 일반 분양 청약접수를 한다.

1529세대로 구성된 소셜믹스 단지다.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59㎡는 평균 5억885만4000원, 84㎡는 평균 6억7532만3000원이다. 입주자는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견본주택은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한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 및 등·호수 배정 발표는 3월 25일 한국감정원 청약홈페이지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계약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4일까지이고 2021년 2월 입주 예정이다.

SH공사는 다음달 9일부터 10일까지 다자녀 및 노부모부양 등 특별분양 청약접수를 진행하고 16~18일에는 일반 분양 청약접수를 한다.



방역 중인 명성교회

명성교회 부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새마을지도자강동구협의회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 교통위반과태료 고지부터 납부까지 모바일로 한번에

문자·카카오톡으로 고지서 전송

그동안 종이 우편으로만 전달됐던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다음달 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별도 신청이나 앱 설치 필요 없이 문자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스마트폰 고지서 도입으로 종이 고지서의 배송 지연과 미수신, 분실 문제를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또 등기우편의 생산·발송 업무에 드는 14억원의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내달 2일부터 두 달간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에 대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당 기간에는 모바일 고지내역을 확인한 납세자에게도 기존 등기우편을 병행 발송할 예정이다.

마체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시민의 납세 편의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소요되는 종이고지서 제작 및 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크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더 많은 스마트 공공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확산... 119 구급대 출동 20배 ↑

코로나19 의심환자 질본으로 신고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119 구급대 출동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 환자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2월 첫째 주(1~7일)에 14건, 둘째 주(8~14일)에 84건, 셋째 주(15~21일)에 292건이었다.

셋째 주 출동 건수는 첫째 주의 20.9배였고,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41.7회였다. 하루 출동 건수가 첫째 주 이례를 모두 합한 것의 3배였다는 얘기가.

코로나19 관련 상담신고 건수는 2월 1주차 414건에서 2주차 573건, 3주차 1668건으로 급증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119 신고 당시에 이송 대상자의 세부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일반환자로 분류되면 일반 구급대가 출동한다"면서 "이송 과정이나 병원 진료단계에서 해당 환자가 코로나19 의심으로 분류돼 검체 검사를 실시하면 이송한 구급대원이 별도 시설에서 확진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격리 조치 된다"고 말했다.

25일 오전 7시 기준으로 8명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이 격리돼 있다. 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해당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고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먼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 SAMSUNG



## 삼성 무풍큐브와 함께라면 우리집은 언제나 맑음

하루종일 미세먼지  
나쁨인 날에도

무풍큐브만의  
독보적인 필터시스템이  
집안에 초미세먼지를 99.999%  
남김없이 제거하니까



삼성 무풍큐브

우리집 맑음 가전  
삼성가전

\*99.999% 집진효율은 초미세청정 집진필터의 0.3 $\mu$ m 입자 집진효율을 의미하며, 필터를 통과한 공기에 한함 \*필터를 통과하는 공기에 대해 통과 전/후 미세먼지의 개수를 비교하여 집진효율을 계산 (시험입자:0.3 $\mu$ m KCl 입자, 시험풍속:1m/sec)  
\*국내공인시험기관 FTI에서 검증을 받은 필터제조사 실험결과이며, 실사용 조건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 \*KS 국가표준 내 공기청정기 에어필터 시험법 KS C 9325:2011 기준 실험 진행 \*테스트용 덕트 사양 : 길이 13,500mm, 너비 650mm, 높이 650mm \*99.999% 집진효율은 해당 모델에 한함